



## 통일신라 출범기의 봉성사와 망덕사 창건목적

The Purposes of Building Bong-Seong-Sa and Mang-Deok-Sa at the Launch of Unified Silla

---

저자 (Authors)	장활식 Chang Hwal-sik
출처 (Source)	<a href="#">신라문화 37</a> , 2011.2, 51-89(39 pages) <a href="#">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37</a> , 2011.2, 51-89(39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a>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628230">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628230</a>
APA Style	장활식 (2011). 통일신라 출범기의 봉성사와 망덕사 창건목적. 신라문화, 37, 51-8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0/22 13:22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통일신라 출범기의 봉성사와 망덕사 창건목적\*

## 장 활 식\*\*

<目 次>	
I. 머리 말	IV. 망덕사의 성격변화와 봉덕사
II. 봉성사의 창건목적	V. 맺 음 말
III. 망덕사의 본원적 성격	

[국문초록] 신라는 670년부터 676년까지 당과 전쟁을 치룬 끝에 삼국통일을 달성했다. 통일신라는 새로운 시대로의 출범에 때맞춰 679년에 사천왕사, 682년에 감은사, 685년 3월에 봉성사, 685년 4월에 망덕사를 연이어 완성했다. 통일신라가 첫걸음을 내딛으면서 대규모의 국찰을 4개씩이나 완성했던 것이다.

사천왕사는 삼국통일을 기념한 호국사찰로 볼 수 있고, 감은사는 호국사찰로 착공되었으나 문무왕의 원찰로 완공된 사찰이다. 봉성사는 신문왕을 괴롭히던 원귀를 위한 사찰이며, 망덕사는 사천왕사를 숨기기 위한 사찰이라고 한다. 사천왕사와 감은사가 통일신라 초기에 반드시 건립되어야 했던 사찰이라면, 봉성사와 망덕사는 건립목적이 의심스러운 사찰이다. 성전사원인 봉성사에서 원귀를 奉聖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천왕사를 숨기기 위한 망덕사가 나당전쟁이 종료된 지 약 10년이나 지나서 완성된 점도 의문이다. 또한 이처럼 상호 무관해 보이는 봉성사와 망덕사가 불과 1개월의 차이를 두고 차례로 완성된 것을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봉성사와 망덕사의 본원적 성격을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봉성사는 김유신의 원찰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봉성사가 신라의 성전사원이었던 이유, 문헌과 금석문에서 信忠奉聖寺와 奉聖神忠寺로 나타나는 이유, 봉성사가 신라의 위기를 예견했던 이유, 봉성사가 거대한 사찰이 된 이유, 봉성사에 절원당이 세워진 이유를 제시했다. 한편 망덕사의 본원적 성격은 놀랍게도 태종무열왕의 원찰로 나타났다. 그러나 망덕사의 13층 목탑들이 서로 싸우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신라 中代 왕실의 안녕이 흔들림으로 해석되어, 결국 원찰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본다. 그리하여 성덕왕 6년(707)에 태종무열왕의 새로운 원찰로 봉덕사가 건립되었다. 망덕사 목탑은 경덕왕 14년(755) 봄에도 흔들렸는데, 그 해 겨울에 당

\* 이 논문은 2009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교수

에서는 安祿山の 난이 발생했다. 그 이후로 망덕사는 唐皇室의 안녕을 예견하는 사찰로 부회되었을 것이다. 혜공왕 4년(768)에 신라를 다녀간 歸崇敬을 수행했던 顧愔은 망덕사가 당 황실의 안녕을 예견하는 사찰이라는 당시의 인식을 『新羅國記』에 기록했고, 그 내용에 『삼국사기』에 인용되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영문초록] Bong-Sung-Sa(奉聖寺) has a tale that King Sinmun tried to lay a revengeful spirit of ShinChung(信忠) to rest by building the temple in 685. However, the real reason for building the temple was to honor General Kim YuShin(金庾信) who led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Mang-Deok-Sa(望德寺) built in the same year has a tale that it intended to hide Sa-Cheon-Wang-Sa(四天王寺) from a Chinese envoy. According to Samguk-Sagi(三國史記), the temple later become a place where Silla people wished for long life of Chinese Emperors. The story, however, is seriously distorted.

The true purpose of the temple was to pay tribute to King Muyeol, or Taijong of Silla(太宗武烈王). Unfortunately, Mang-Deok-Sa had a fatal problem with the two skyrocketed wooden pagodas. The thirteen-story pagodas shook violently for days, making people believe that the twin pagodas were fighting each other. Thus, Silla had to abandon the temple and make the true meaning of the temple secret. Later, people started to relate the shaking of the pagodas with the unstable political states in China. Thus, a story was formed that the temple is related to the Chinese Emperors, not to the Taijong of Silla. Such an embroidered story was spreaded to China and recorded in history books. Bong-Deok-Sa(奉德寺) built in 707 was the new temple to replace Mang-Deok-Sa.

[주제어] 망덕사(Mang-Deok Temple), 태종무열왕(King Taizong Mu-Yeol), 원찰(Memorial Temple), 나당전쟁(Silla-Tang War), 윤색 설화(Embellished Tales)

## I. 머리말

신라는 백제정복(660), 고구려정벌(668), 나당전쟁(670~676)을 거쳐 삼국통일을 이룩했다. 삼국통일기년은 나당전쟁이 종료된 문무왕 16년(676)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지만, 신라인들은 一統三韓기년을 의봉 4년인 문무왕 19년(679)으로 본 듯하다.<sup>1)</sup> 경주의 왕실관련유적에서 출토되는 ‘儀鳳四年皆土’ 명문기와는 ‘문무왕 19년에 통일을 이룸’을 천명하고 있다.<sup>2)</sup>

통일신라는 새로운 시대로의 출범에 때맞춰 문무왕 19년에 사천왕사, 신문왕 2년(682)에 감은사, 신문왕 5년(685) 3월에 봉성사, 신문왕 5년(685) 4월에 망덕사를 연이어 완성했다.<sup>3)</sup> 이에 앞서 문무왕은 재위 4년(664)에 재화와 토지를 사찰에 임의로 시주하는 것을 금지시킨 바 있다.<sup>4)</sup> 따라서 통일신라 출범기에 사천왕사, 감은사, 봉성사, 망덕사가 차례로 완성된 것은 단순한 佛事가 아니며, 특별한 목적을 추구했던 국가적 사업으로 판단된다.<sup>5)</sup>

사천왕사는 나당전쟁 초기에 당을 물리친 문두루 비법을 읊은 곳에 세운 호국사찰로 알려져 있다.<sup>6)</sup> 그런데 사천왕사의 완성시점은 문무왕 19년으로 통일신라 출범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sup>7)</sup> 따라서 사천왕사는 “삼국통일을 맞아 文武大王代에 初建된 護國刹”<sup>8)</sup>로 볼 수 있다. 삼국통일을 기념하며 통일신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호국사찰로 정의될 수가 있을 것이다.

감은사는 문무왕이 용이 되어 왜를 물리치려고 지었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신문왕이 완성하여 ‘感恩寺’라고 이름 지었다고 한다.<sup>9)</sup> 금당 아래에서 발견된 유례없는 지하구조는 문무왕 호국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sup>10)</sup> 감은사는 문무왕이 호국사찰로 착공했으나 신문왕이 문무왕의 원찰로 완성했다고 본다.

사천왕사와 감은사는 통일신라출범기에 걸맞은 國刹이다. 한편 봉성사와 망덕사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기록에 나타난다. 창건연기설화에 따르면 奉聖寺는 신문왕에게 원한을 품은 信忠이라는 귀신을 달래기 위함이며,<sup>11)</sup> 望德寺는 당고종이 보낸

- 
- 1) 최민희, 「儀鳳四年皆土 글씨기와를 통해 본 신라의 통일 의식과 통일기년」 『경주사학』 21, 2002, pp. 1~29.
  - 2) 大坂金太郎, 「儀鳳四年皆土 在銘新羅古瓦」 『朝鮮學報』 53, 1969, p. 62(재인용: 최민희, 2002, 위의 글, p. 4); 이기동, 「新羅 中代 序說: 槿花鄉의 진실과 虛妄」 『신라문화』 25, 2005, p. 11; 기와연구에 있어서 통일기는 679년 이후로 정의된다(이동주, 「기와로 본 신라 왕경의 공간변화」 『역사와 현실』 68, 2008, p. 118).
  - 3) “四天王寺成”(『三國史記』, 文武王 19年 8月); “開耀二年畢排”(『三國遺事』, 紀異, 萬波息笛); “奉聖寺成”(『三國史記』, 神文王 5年 3月); “望德寺成”(『三國史記』, 神文王 5年 4月).
  - 4) “禁人擅以財貨田地施佛寺”(『三國史記』, 文武王 4年).
  - 5) 이근직, 「통일신라 봉성사와 절원당」 『신라사학보』 7, 2006, p. 78.
  - 6) 『三國遺事』, 紀異, 文虎王法敏; 同書, 神咒, 明朗神印; 同篇, 惠通降龍.
  - 7) 사천왕사의 착공시점은 문두루 비법이 행해진 문무왕 10년(670)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언제부터 터를 닦고 주춧돌을 놓았는지는 알 수 없다.
  - 8) 황수영, 「新羅 狼山의 陵旨塔에 대하여」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17, 1996, p. 68.
  - 9) 『三國遺事』, 紀異, 文虎王法敏; 同書, 紀異, 萬波息笛.
  - 10) 한정호, 「감은사지 삼층석탑 창건 과정과 意匠計劃에 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 253, 2007, pp. 7~9.

사신 樂鵬龜에게 사천왕사를 감추기 위함이라 한다.<sup>12)</sup> 다음의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신문왕 5년(685)에 봉성사와 망덕사가 불과 1개월의 차이로 거의 동시에 완성된 것을 우연으로 볼 수 있을까? 신라왕조가 대규모 국찰을 王都에 빈번하게 건립한 것은 아니었다. 원귀를 위한 봉성사와 사천왕사를 감추기 위한 망덕사가 통일신라출범기에 거의 동시에 완성된 이유는 무엇일까?

둘째, 사천왕사, 감은사, 봉성사는 성전이 설치된 사원이었다. 成典이란 국가의 핵심적 사원을 관리하던 신라의 중앙행정조직을 말한다.<sup>13)</sup> 성전이 설치된 사원에서 崇奉 儀典은 함께 비교될 만한 것이 없었다고 한다.<sup>14)</sup> 사천왕사는 삼국통일을 기념한 사찰이며, 감은사는 삼국통일을 이룬 문무왕의 원찰이었으므로 당연히 성전이 설치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冤鬼를 위로한 사찰이라는 봉성사에 성전이 설치된 이유는 무엇일까? 왜 통일신라 출범기에 완성된 4개 사찰 중에서 망덕사에만 성전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일까?

셋째, 사천왕사를 숨기려했다는 망덕사가 나당전쟁이 끝난 문무왕 16년(676)보다 9년이나 후인 신문왕 5년(685)에서야 완성된 이유는 무엇일까? 당고종은 신문왕 3년(683) 12월에 죽었다.<sup>15)</sup> 그러므로 그가 樂鵬龜라는 사신을 통해 신문왕 5년(685) 4월에 완성된 망덕사를 확인할 수 없었음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망덕사가 세워진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넷째, 신문왕은 父王인 문무왕을 위해 감은사를 완성했는데, 문무왕은 자신의 부왕인 태종무열왕을 위한 원찰을 짓지 않았던 것일까? 신라태종의 원찰도 짓지 못한 통일신라가 봉성사와 망덕사를 신문왕 5년(685)에 완성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창건연기설화 아래에 감춰져 있는 봉성사와 망덕사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다. 설화해석의 관건은 내포된 진실을 찾는 것이다. 설화에 합리적 사고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음은 차라리 당연하며, 또한 설화이기에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 소재 설화는 상상력이 가미된 허구적 진실로서의 설화”<sup>16)</sup>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봉성사와 망덕사와 관련된 기록의 허구적 꺼풀을 들추어내고, 내포된 진실

11) 『三國遺事』, 神咒, 惠通降龍, 同書, 感通, 信忠掛冠.

12) 『三國遺事』, 紀異, 文虎王法敏.

13) 이영호, 「新羅中代 王室寺院의 官寺의 機能」 『한국사연구』 43, 1983, p. 100.

14) “崇奉之典 無與爲比”(『東史綱目』, 戊寅年 孝成王 2年 4月).

15) “帝崩於眞觀殿 時年五十六”(『舊唐書』 卷5, 高宗 永淳 2年 12月).

16) 조유영, 「삼국유사 소재 미추왕 설화의 형성배경과 그 의미」 『어문학』 98, 2007, p. 217.

을 찾는 것이 본 연구의 중심과제이다.

## II. 봉성사의 창건목적

현재 봉성사지의 위치는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sup>17)</sup> ‘永泰二年 七月 (缺字) 北方 奉聖寺’로 새겨진 뚜껑이 발견된 경주 인왕동 舊 교육청 주변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해 보인다.<sup>18)</sup> 봉성사는 문무왕 후기 혹은 말기에 착공된 것으로 추정된다.<sup>19)</sup> 월지가 조성된 문무왕 14년(674), 영창궁성전이 설치된 17년(677),<sup>20)</sup> 궁궐을 수리하고 사천왕사를 완성한 19년(679)을 주목할 수 있다. 완공시점은 신문왕 5년(685) 3월로 나타난다. 봉성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사찰이었다.

첫째, 봉성사는 대규모 사찰이었다. 완공 때의 규모는 알 수 없지만, 효공왕 16년(912)에 봉성사 외문은 21칸이었다.<sup>21)</sup> 황룡사 남문 10칸과 비교하면 봉성사의 거대함을<sup>22)</sup> 짐작할 수 있다.

둘째, 봉성사는 사천왕사, 영묘사, 황룡사와 함께 국가 위기를 예견하는 사찰로 인식되었다.<sup>23)</sup> 혜공왕 4년(768)에 봉성사 앞에서 蓮이 피어난 후에 대공의 반란이 일어났고,<sup>24)</sup> 효공왕 16년(912)에 봉성사 외문에 까치가 집을 지은 후에 효공왕이 죽었다고 한다.<sup>25)</sup>

셋째, 봉성사는 감은사와 적어도 동격인 성전사원이었다. 봉성사성전은 구성인원에 있어서 감은사성전과 동일했다.<sup>26)</sup> 『삼국사기』, 職官志에서 봉성사성전은 감

17) 이근직, 2006, 앞의 글, pp. 68~77.

18) 박홍국, 「永泰二年 奉聖寺銘 蠟石製 蓋 小考」, 『불교고고학』 2, 위덕대학교 박물관, 2002, p. 105.

19) 윤선대, 「新羅 中代の 成典寺院과 國家儀禮 -大·中·小祀의 祭場과 관련하여」, 『신라 문화제학술논문집』 23, 2002, p. 90; 이근직, 2006, 앞의 글, p. 78.

20) 『三國史記』, 職官志, 永昌宮成典.

21) “奉聖寺外門東西二十一間鶴巢”(『三國遺事』, 紀異, 孝恭王); “여러 차례 중창을 거친 신라 말기인 효공왕대의 모습”(이근직, 앞의 글, 2006, p. 82)이다.

22) 이영호, 「新羅 成典寺院의 成立」,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 논문집』 14, 1993, p. 281; 이근직, 2006, 앞의 글, p. 83.

23) 김재경, 「신라의 밀교 수용과 그 성격」, 『대구사학』 14, 1978, p. 27.

24) 『三國遺事』, 紀異, 惠恭王; 『三國史記』, 惠恭王 4年 7月.

25) 『三國遺事』, 紀異, 孝恭王; 『三國史記』, 孝恭王 16年 4月.

은사성전보다 먼저 나오는데, 그 순서를 寺格으로 보면,<sup>27)</sup> 봉성사는 감은사보다 오히려 격이 더 높았다.

넷째, 봉성사는 신문왕 5년(685)에 완성되어, 효소왕 2년(693)에 신라의 중요사원으로 기능하고 있었고,<sup>28)</sup> 경덕왕 18년(759)과 애장왕 6년(805)에도 성전사원 지위를 유지했다.<sup>29)</sup> 봉성사에는 다른 사찰에는 유례가 없는 절원당이 있었고, 봉성사와 절원당이 13세기말에도 남아있었다고 일연은 아래의 창건연기설화를 통해 전한다.

[가-1] 처음에 신문왕이 등창이 나서 혜통에게 치료해 주기를 청했다. 혜통이 주문을 외니 병이 즉시에 나았다. 혜통이 말했다. “폐하께서 전생에 재상의 몸으로 臧人 신분의 信忠을 잘못 판결하여 노비로 만들었는데, 신충이 그 원한을 품고 윤회하여 환생할 때마다 폐하께 보복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등창도 역시 신충의 보복에 의한 것이오니, 부디 신충을 위해 절을 세워 그의 명복을 빌어서 원한을 풀게 하십시오.” 왕이 옳다고 생각하여 절을 세워 信忠奉聖寺라고 했다. 절이 완성되자 공중에서 외쳤다. “왕이 절을 지어 주어 괴로움에서 벗어나 하늘에 태어났으니, 이제 원한은 풀렸습니다.” [주석: 어떤 책에는 이 사건이 眞表의 전기에 실려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외친 곳에 折怨堂을 지었는데 그 堂과 寺는 지금도 남아 있다.] (『三國遺事』, 神呪, 惠通降龍)

혜통은<sup>30)</sup> 문무왕 5년(665)과 효소왕 원년(692)에 활동한 밀교승려로 사천왕사에서 문두루 비법을 행한 神印宗의 명랑과 동일계통이며, 명랑보다 시기적으로 앞섰다. 명랑은<sup>31)</sup> 선덕여왕 원년(632)에 입당했는데, 당시 나이를 20세라 하더라도 612년 이전에 태어났다. 따라서 혜통은 신문왕 5년(685)에 최소 74세의 고령이었다.

진표는<sup>32)</sup> 효성왕 4년(740)에 23세였다는 기록과 경덕왕 19년(760)에 27세였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출생연도는 성덕왕 17년(718) 혹은 33년(734)으로 추정된다.

26) 『三國史記』, 職官志, 奉聖寺成典; 同志, 感恩寺成典.

27) 이근직, 2006, 앞의 글, p. 83.

28) 『三國遺事』, 塔像, 栢栗寺; 이영호, 1983, 앞의 글, p. 112.

29) 『三國史記』, 職官志, 奉聖寺成典.

30) 『三國遺事』, 神呪, 惠通降龍.

31) 『三國遺事』, 神呪, 明朗神印; 同書, 紀異, 文虎王法敏; 同書, 義解, 二惠同塵; 同篇, 義湘傳教; 同書, 神呪, 惠通降龍.

32) 『三國遺事』, 義解, 眞表傳簡; 同篇, 關東楓岳鉢淵藪石記; 同篇, 心地繼祖.

혜공왕 2년(766)에 금산사를 나온 후, 금강산에서 7년을 살았고, 이후에도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발연사에 머물렀다고 한다.

‘信忠’이 실존인물이라면, 8세기의 金信忠이 가장 유력하다고 한다. 『삼국사기』는 신충이 효성왕 3년(739)에 中侍가 되었고, 경덕왕 16년(757)부터 22년(763)까지 상대등이었다고 했다. 또한 『삼국유사』, 避隱편, 信忠掛冠조는 신충을 중심인물로 하여, 효성왕 대에 등용된 과정과 상대등에서 물러난 이후의 행적을 소개했다. 따라서 신충이 효성왕 및 경덕왕 대의 핵심인물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가-1]의 등장인물은 신문왕(681~692)대의 혜통과 경덕왕(742~765)대의 진표와 신충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삼국유사』 편자 일연은 신충봉성사와 절원당이 신문왕대에 건립되었다고 보았다.<sup>33)</sup> 신문왕이 약 100년 이후의 인물인 신충을 위해 절을 짓지는 않았을 것으로 설화 속의 ‘信忠’은 경덕왕대의 실존인물인 金信忠이 아니라고 했다.<sup>34)</sup> 또한 [가-1]의 주석에 나타나듯이 신문왕대의 봉성사 건립에 8세기 인물인 진표가 관여했을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다.<sup>35)</sup>

그러나 이기백(1962)은 창건설화에 등장하는 ‘信忠’이라는 애매모호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신충봉성사와 절원당을 경덕왕대의 실존인물인 신충과 관련지었다.<sup>36)</sup> 신충봉성사와 절원당은 경덕왕 22년(763) 이후에 건립되었고, 진표가 건립에 관여했다고 보았다.

채상식(1984)은 봉성사가 신문왕 5년(685)에 始創되었다는 기록을 지적하고, 경덕왕 대에 重創되었을 것이라 했다.<sup>37)</sup> 그는 신문왕 5년(685)의 봉성사 개창에 혜통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았고, 실존인물인 신충을 위한 절원당이 경덕왕대에 중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봉성사의 창건목적과 절원당이 봉성사에 추가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영호(1993)는 “왕이 사원을 창건한 목적은 자신의 등창을 낮게 함이 목적이었으므로, 뒤에 신문왕 자신의 願堂으로 변화되었다”<sup>38)</sup>고 보았다. 봉성사의 창건목적

33) 이승남, 「삼국유사 신충괘관조에 나타난 일연의 서사적 시각」 『한국사상과 문화』 40, 2007, pp. 51~57.

34) “兩存之闕疑”(『三國遺事』, 避隱, 信忠掛冠).

35) “或本載此事於 眞表傳中誤”(『三國遺事』, 神呪, 惠通降龍).

36) 이기백, 「景德王과 斷俗寺·怨歌」 『한국사상』 5, 1962(재수록: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1974, pp. 224~225).

37) 채상식, 「新羅統一期の 成典寺院의 구조와 기능」 『부산사학』 8, 1984, pp. 90~91.

38) 이영호, 1993, 앞의 글, p. 274.

을 설화적 인물 ‘信忠’과 관련된 治病에서 찾고, 봉성사가 성전사원인 이유를 신문왕의 원찰로 설명한 듯하다. 그러나 신문왕의 願刹은 황복사로 밝혀졌으므로<sup>39)</sup> ‘봉성사가 신문왕의 願堂’이라는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봉성사성전의 설치시점은 신문왕 4년(684)이 정설이다.<sup>40)</sup> 따라서 신문왕의 치병을 위한 봉성사성전이 설치되었던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 한편 그는 사천왕사를 태종무열왕의 원당으로 보았다.<sup>41)</sup> 사천왕사가 태종무열왕의 원당, 감은사가 문무왕의 원당이면, 성전사원 봉성사는 당연히 신문왕의 원당이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본다.

윤선태(2000)는 황복사지에서 발견된 비편을<sup>42)</sup> 소개했는데, ‘□聖神忠寺’로 판독되며, ‘聖’과 ‘神忠’에 유념할 때, ‘奉聖神忠寺’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sup>43)</sup> 그는 금석문의 ‘奉聖神忠寺’가 봉성사의 정확한 이름이며, 『삼국유사』의 ‘信忠奉聖寺’는 와전이라 판단했다.<sup>44)</sup> 또한 “봉성사의 창건은 신문왕의 治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良人의 이름을 사찰명으로 사용하였다”<sup>45)</sup>고 하여 봉성사가 ‘神忠’이라는 이름의 양민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봉성사가 매우 거대한 사찰이었고, 성전사원이었고, 국가위기를 예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이상의 연구들은 성전사원 중의 하나로 봉성사를 고찰했지만, 이근직(2006)은 봉성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적 분석을 했다.<sup>46)</sup> 그는 봉성사와 절원당의 건립시점을 달리보고, 우선 봉성사가 설화적 인물인 ‘信忠’과 무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信忠’은 양민에서 노예로 전락하여, 원한에 사무쳐 복수를 일삼는 존재이므로 奉聖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信忠’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라면 조그만 절을 지어도 무방했으며, 봉성사와 같이 거대한 사찰을 짓지 않았을 것이다. 셋째, 봉성사가 원귀를 위한 절이었다면 영묘사, 황룡사, 사천왕사처럼 신라에 일어날 재난을 경고하는 호국사찰의 면모를 보일 수 없다. 넷째, 봉성사가 ‘信忠’이라는 개인을 위한 원찰이었다면 결코 신라의 성전사원이 될 수 없다.

39) “神文大王 (中略) 乘天 (中略) 建立三層石塔”(『皇福寺石塔金銅舍利函記』).

40) 이영호, 1983, 앞의 글, p. 108.

41) 이영호, 1993, 앞의 글, p. 277.

42) 현재 ‘비편’(001167/000)으로 분류되어 동국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43) 윤선태, 「新羅의 寺院成典과 衿荷臣」, 『한국사연구』 108, 2000, pp. 7~10.

44) “新羅人은 人名의 文字上 表現의 變化를” 좋아했다(문경현, 「新羅建國說話의 研究」 『대구사학』 4, 1972, p. 44)는 점에서 단순한 와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45) 윤선태, 2002, 앞의 글, p. 88.

46) 이근직, 2006, 앞의 글, pp. 65~100.

봉성사의 특성과 ‘信忠’의 신분을 고려한 이러한 지적들은 모두 타당하다고 본다. 봉성사가 ‘信忠’의 원찰이라면, ‘信忠’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信忠은 신문왕 5년(685)에 성전사원에서 奉聖되었던 인물이다. 결코 凡人일 수 없으며, 聖人이어야만 한다. 둘째, 봉성사가 신라에 일어날 재난을 경고했으므로 信忠은 호국적 인물이어야 한다. 원귀 따위로 볼 수 없다. 셋째, 봉성사 성전이 감은사성전보다 적어도 격이 같았으므로 信忠은 문무왕과 동격 이상의 인물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인물이 많지 않음은 물론이다.

이근직(2006)은 봉성사에서 奉聖되었던 인물을 위기의 신라를 삼국통일의 주역으로 전환시켰고, 신라의 숙적이었던 백제를 정벌했고,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다졌으며, 자신의 자손들에게 신라 중대를 열어주었던 문무왕의 父王인 신라태종무열왕으로 지목했다. 삼국통일 이후에 태종무열왕을 위한 추모사업이 행해지지 않은 점은 실로 의아하게 생각되어 왔다. 그래서 이영호(1993)는 태종무열왕의 원당으로 사천왕사를 지목했고, 윤선태(2002)는 태종무열왕을 위한 추복법회가 사천왕사에서 개최되었다고 보았고,<sup>47)</sup> 이근직(2006)은 태종무열왕의 원찰을 봉성사로 보았다.

태종무열왕에 대한 추모사업이 문무왕 대에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이러한 견해들은 타당하다고 본다. 문무왕은 통일신라 출범 이후에 신라종묘를 정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정에서 발굴된 ‘儀鳳四年皆土’ 명문기와<sup>48)</sup>는 문무왕 19년(679)경의 박씨 제사시설의 변화를 보여주며, “문무왕 20년(680)에 탈해왕의 소상을 만들어 토함산에 안치했다”<sup>49)</sup>는 기록은 석씨 제사시설의 변화를 보여준다. 또한 문무왕은 ‘儀鳳四年皆土’ 기와를 사용하여 엄청난 규모의 건축사업을 벌렸다.<sup>50)</sup> 문무왕이 종묘와 관련된 건축사업을 전개했다면, 최우선 순위가 태종무열왕의 추모에 있었을 것임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이근직(2006)은 봉성사에 절원당이 추가적으로 건립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했다. 절원당은 설화적 인물 ‘信忠’과 관련짓기 어려우며, 또한 경덕왕대의 실존인물 신충과도 관련짓기 어렵다고 보면서, 봉성사가 9세기에 이르러 寺格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했다.<sup>51)</sup>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결

47) 윤선태, 2002, 앞의 글, p. 24.

48) 이은석, 「왕경에서 본 나정」, 『경주 나정: 신화에서 역사로』,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대회논문집, 2005, p. 103.

49) 『三國遺事』, 紀異, 脫解王.

50) 최민희, 2002, 앞의 글, p. 19.

51) 이근직, 2006, 앞의 글, pp. 92~93.

과에 의하면 봉성사와 절원당의 관계는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우선 봉성사와 절원당의 건립시기에 주목했다. 창건설화에 따르면 봉성사가 완성된 후에,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를 들은 후에 절원당을 지었다고 한다. 봉성사를 완성한 후에 별도로 절원당을 지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봉성사는 신문왕대에 건립되었지만, 절원당은 후대에 건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봉성사의 애초 건립목적이 ‘信忠’의 원망을 풀기 위한 것이라면, 봉성사 자체가 ‘信忠’을 위한 折怨寺이다. 굳이 信忠奉聖寺에 折怨堂을 중첩해서 지을 필요가 없겠다. 그렇다면 ‘信忠’의 원한을 풀기 위한 건물은 봉성사가 아니며, 절원당임이 분명하다.<sup>52)</sup>

봉성사의 애초 건립목적은 애매모호한 설화적 인물 ‘신충’에 의존할 수 없으며, 시대상황에 비추어 밝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성전사원인 奉聖寺에서 신문왕 5년(685)에 실제로 奉聖된 인물을 찾아야 한다.

奉聖의 대상에 대해 이근직(2006)은 “‘聖’자를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을 문무왕의 입장에서 고려한다면 父王인 태종무열왕을 제외하고는 있을 수가”<sup>53)</sup> 없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삼국사기』를 기준으로 하면 ‘聖’은 황제, 왕, 왕비, 왕의 조상 정도로 국한된다. 혁거세와 알영을 “二聖”이라 한 점, 탈해가 “왕은 聖智人”이라 한 점, 선덕여왕을 “聖祖皇姑”라 한 점 등에서 聖인이 왕족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sup>54)</sup>

그러나 『삼국유사』에서는 그렇지 않다. 무열왕의 묘호인 태종이 당 태종과 같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sup>55)</sup> “신라는 비록 작은 나라지만 聖臣 김유신을 얻어 삼국을 통일했으므로 태종이라 했다”<sup>56)</sup>는 기록에서 ‘聖臣’ 김유신이 등장한다. 또한 만파식적은 문무왕과 김유신 ‘二聖’이 덕과 마음을 같이하여 내려준 보물이라고 했다.<sup>57)</sup> 『삼국유사』에서 김유신이 ‘聖臣’ 혹은 ‘聖人’으로 나타나는 것이다.<sup>58)</sup>

52) 이근직, 2006, 앞의 글, pp. 86~87.

53) 이근직, 2006, 앞의 글, pp. 80~81.

54) 『三國史記』, 始祖赫居世居西干 4年; 同書, 儒理尼師今 元年; 同書, 善德王 元年.

55) 묘호개칭요구는 『삼국사기』에 神文王 沒年(692)에 기록되어 있지만, 神文王 2年(682)경으로 본다(황운룡, 「신라태종묘호의 분규시말」, 『동국사학』 17, 1982, pp. 16~18; 서영교, 「九誓幢 완성 배경에 대한 신고찰: 나당전쟁의 여진」, 『한국고대사연구』 18, 2000, pp. 248~249; 권덕영, 「8, 9세기 ‘군자국’에 온 당나라 사절」, 『신라문화』 25, 2005, p. 97).

56) “新羅雖小國得聖臣金庾信 一統三國”(『三國遺事』, 紀異, 太宗春秋公).

57) “二聖同德 (中略) 二聖同心”(『三國遺事』, 紀異, 萬波息笛).

奉聖寺는 태종무열왕의 원찰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첫째, ‘奉聖’은 ‘聖人  
으로 받들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태종무열왕은 신라의 태종이 아닌 신라왕  
이라는 자격만으로도 당연히 聖人이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춘추는 즉위 이전  
부터 이미 ‘神聖之人’이었다.<sup>59)</sup> 태종무열왕은 지극히 존엄하여 사후에 奉聖되었을  
가능성이 없다. 한편 ‘奉聖’을 ‘성스러움을 받들다’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추화군의 奉聖寺에서 寶壤과 璃目を 二聖으로 섬겼다고 하며,<sup>60)</sup> 불국사에서 表訓,  
圓測, 瑜伽를 三聖으로 섬겼다고 한다.<sup>61)</sup> 이러한 예를 볼 때, ‘奉聖’의 대상이 신  
라왕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봉성사는 ‘信忠奉聖寺’ 혹은 ‘奉聖神忠寺’로 나타난다. 모두가 ‘忠’자를 포  
함하고 있어 봉성사를 태종무열왕의 원찰로 보기 어렵게 한다. ‘聖’이 일반인에게  
적용될 수 없는 만큼, ‘忠’도 신라왕에게 적용될 수 없다. ‘忠’이 신하에게만 적용  
되는 물론이다.

그렇다면 봉성사에서 추앙되었을 인물로 김유신이 강력하게 떠오른다. 과연 신  
문왕 5년(685)에 김유신이 봉성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 김유신  
이 興武大王으로 추봉된 시점은 흥덕왕 10년(835), 경명왕 7년(923)이다.<sup>62)</sup> 따라서  
그 이전의 김유신은 聖人이 아니었으며, 奉聖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란이 제기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은 의미가 없다. 봉성사가 ‘信忠奉聖寺’로 기록되  
었고, 특히 금석문에서 ‘奉聖神忠寺’로 나타났으므로 봉성의 대상 인물이 ‘神忠’  
혹은 ‘信忠’인 것은 분명하다. 김유신을 반드시 금석문의 ‘神忠’으로 볼 수 있는지  
혹시 문헌의 ‘信忠’으로도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神忠’이라 불릴 수 있는 인물은 신라 전대를 통 털어도 김유신뿐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김유신은 33天의 아들로써 신라로 내려와서 大臣이 되었지만, 사후에 다  
시 天神이 되었다고 한다.<sup>63)</sup> 김유신은 원래 天神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직접적인  
비교는 어리석지만, 桓雄天王의 아들인 檀君이 아사달의 地神이 된 것을 보면,<sup>64)</sup>

58) 김태식, 「方士로서의 김유신: 道敎敎團으로서의 花郎 탐구를 兼하여」, 『신라사학보』 11, 2007, pp. 100~101.

59) 「唐帝賞其風彩 謂爲神聖之人」(『三國遺事』, 紀異, 太宗春秋公).

60) 『三國遺事』, 義解, 寶壤梨木. 추화군의 奉聖寺는 경주의 奉聖寺와는 별개이다(이운성, 「推火 奉聖寺址에 대하여」, 『미술사학연구』 9, 1964, p. 575).

61) 김복순, 「義湘과 皇福寺」,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7, 1996, p. 158.

62) 김태식, 「金庾信의 興武大王 추봉시기」, 『신라사학보』 6, 2006, pp. 199~211.

63) 『三國遺事』, 紀異, 萬波息笛.

64) 『三國遺事』, 紀異, 古朝鮮.

天神의 의미를 짐작할 수가 있다. 김유신은 神異했으며, 神劍과 神術을 사용했고, 神兵을 거느렸고, 神笛을 내렸다.<sup>65)</sup>

信忠에서 ‘信’은 ‘믿음’을 뜻할 수 있다. 김유신의 信義는<sup>66)</sup> 蘇定方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한 예에서<sup>67)</sup> 명확히 드러난다. 그러나 信忠의 ‘信’은 ‘믿음’이라기보다는 ‘金庾信’의 ‘信’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봉성사는 ‘神忠 金庾信을 奉聖하는 寺’로 볼 수 있다.

다음은 봉성사가 효공왕 16년(912)에 21칸의 외문을 가진 거대한 사찰로 나타나는 이유를 밝힌다. 봉성사와 동시대에 건립된 사천왕사의 중문,<sup>68)</sup> 감은사의 중문,<sup>69)</sup> 망덕사의 중문<sup>70)</sup>은 모두 정면 3칸, 측면 2칸이었던 것으로 발굴 결과에서 나타났다. 사찰의 격을 감안한다면 창건 당시의 봉성사 중문도 역시 6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봉성사는 창건된 이후에 寺格의 상향조정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는 신라 하대에 김유신이 興武大王으로 추봉된 사실과 김유신 가문의 財買井宅이 金入宅인 점에<sup>71)</sup> 비추어 설명될 수 있다. 즉 김유신 자손들이 신라 하대에 득세하면서<sup>72)</sup> 김유신에 대한 대왕 추봉과 봉성사의 중창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김유신의 대왕 추봉은 흥덕왕 10년(835)경으로 인정되며,<sup>73)</sup> 경명왕 7년(923)에 재차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sup>74)</sup> 그렇다면 봉성사는 김유신 자손의 得勢와 失勢에 따라 寺格의 변화를 경험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봉성사가 국가적 위기를 예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힌다. 봉성사는 김유신의 원찰로서 당연히 신라의 위기를 예견했어야만 했다. 김유신은 신라의 護國

65) 『三國遺事』, 紀異, 金庾信; 同篇, 太宗春秋公; “陰兵護我者”(『三國史記』, 列傳, 金庾信, 文武大王 13年); 『三國遺事』, 紀異, 萬波息笛.

66) 김태준, 「金庾信傳 연구」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7, 2004, pp. 143~164.

67) 『三國史記』, 列傳, 金庾信, 太宗大王 7年 7月.

68) 최장미, 강정미, 김수희, 「사천왕사지 발굴조사 성과와 의의」 『신라 호국의 염원 사천왕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8, p. 32.

69) 조유전, 「感恩寺址 發掘調査 概要」 『古文化』 19, 1981, p. 29.

70) 김정수, 「望德寺三層木塔의 形態推定에 관한 研究: 文化財와 現地踏査를 中心으로」 『대한건축학회지』 119, 1984, p. 5.

71) 이현태, 「新羅 中代 新金氏의 登場과 그 背景」 『한국고대사연구』 42, 2006, p. 235.

72) 김태식, 2006, 앞의 글, p. 207.

73) 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77, p. 637; 이현태, 2006, 앞의 글, p. 239; 김태식, 2006, 앞의 글, pp. 199~212.

74) 이문기, 「金官加耶師의 始祖 出自傳承과 稱姓의 變化」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25, 2004, p. 4; 김태식, 2006, 앞의 글, p. 211.

神이었다.<sup>75)</sup> 김유신은 3명의 護國山神에 의해 보호되기도 했다.<sup>76)</sup> 김유신은 고려 시대에 풀을 베는 아이들에게도 알려졌고, 조선시대에도 여전히 神格으로 받들어졌고, 현재에도 전국 10개 사당에서 護國神으로 추송되고 있다.<sup>77)</sup>

다음은 봉성사가 적어도 감은사에 비견되는 사격을 가질 수 있었는가를 검토한다. 고려 및 조선시대의 君臣관계로 보면 김유신이 문무왕과 동격을 이루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1970년대에 세워진 경주시 남산동의 통일전에는 삼국통일의 주역인 태종무열왕, 문무왕, 김유신의 영정과 사적비가 있는데, 김유신 영정은 銀冠을 쓰고 있고, 사적비는 문무왕보다 아랫자리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배치는 『삼국유사』가 김유신, 태종무열왕, 문무왕을 차례대로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sup>78)</sup> 어쨌든 현대에서도 김유신은 문무왕보다 격이 낮게 평가되어 있다. 신라 당대에 있어서 김유신이 문무왕의 외숙부였다는 점, 태종무열왕의 정치적 동반자였다는 점,<sup>79)</sup> 문무왕이 社稷을 김유신에게 의존했다고 한 점<sup>80)</sup> 등으로도 김유신을 문무왕과 동격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런데 문무왕은 “가야 시조 수로왕은 나의 15대 祖”라고 선언하고 “수로왕의 제사를 신라 宗廟에 합칠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sup>81)</sup> 문무왕이 수로왕을 신라종묘에 편입시켰다면, 이는 곧 김유신을 자신의 직계조상과 동일한 반열에 올려놓았음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김유신은 문무왕의 동격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유교적 기준으로 보면, 수로왕의 신라종묘 편입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合于宗祧”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본다.<sup>82)</sup> 이는 삼국통일기에 김유신 집단에게 金씨성이 하사되었다는 종래의 견해와<sup>83)</sup> 상충하지 않는다.

75) “今爲魂魄 鎮護邦國”(『三國遺事』, 紀異, 末鄒王竹葉軍).

76) 『三國遺事』, 紀異, 金庾信; 박대복, 『三國遺事 소재 金庾信 屑話의 巫觀念과 天觀念』, 『한국민속학』 44, 1996, pp. 190~195.

77) 『三國史記』, 列傳, 金庾信, 史論; 박성계·김수민, 『金庾信關聯 文獻史料와 說話의 比較』, 『신라문화』 31, 2008, pp. 195~204.

78) 『三國遺事』, 紀異, 金庾信; 同篇, 太宗春秋公; 同篇, 文虎王法敏.

79) 『三國史記』, 神文王 12年 春.

80) 『三國史記』, 列傳, 金庾信, 文武王 13年 6月; 同傳, 摠章元年戊辰.

81) “合于宗祧”(『三國遺事』, 紀異, 駕洛國記).

82) 이문기, 2004, 앞의 글, p. 33; 이현태, 2006, 앞의 글, pp. 251~257; 채미하, 『신라 종묘 제의 수용과 그 의미』, 『역사학보』 176, 2002, pp. 41~65.

83) 이용현, 『가야의 姓氏와 ‘金官’國』, 『史叢』 48, 1998, pp. 11~22; 이현태, 2006, 앞의 글, pp. 231~271; “羅人自謂少昊金天氏之後故姓金 庾信碑亦云軒轅之裔少昊之胤”(『三國史記』, 列傳, 金庾信 上).

더욱이 “首露王의 神位가 宗廟에 모셔진 것은 당시 金庾信이라는 유력한 인물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sup>84)</sup> 헤아려진다. 문무왕이 김유신을 자신의 직계조상의 반열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봉성사는 성전사원이 될 수 있었다고 본다.

봉성사는 경덕왕 18년(759)과 애장왕 6년(805)에도 성전사원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sup>85)</sup> 본 연구는 이를 입증할만한 혹은 부정할만한 추가적인 史料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데 아래 기록에서 김유신의 원찰이 취선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가-3] 혜공왕 14년(779) 4월에 김유신의 무덤에서 회오리바람이 일어나, 미추왕의 무덤으로 들어갔다. 김유신의 혼백이 호소했다. “臣은 평생 동안 어려운 시국을 구제하고 삼국을 통일한 공이 있습니다. 지금 혼백이 되어서도 나라를 지키고, 재앙을 없애고, 환난을 구제하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온데 경술년에 臣의 자손이 아무런 죄도 없이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것은 君臣들이 저의 공로를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臣은 차라리 먼 곳으로 떠나서 다시는 나라를 위해 힘쓰지 않을까 합니다.” 미추왕의 혼백이 대답했다. “공이 이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면 저 백성들은 어찌할 것인가? 공은 이전과 같이 힘쓰도록 하시오.” 김유신이 3번이나 청해도 미추왕이 듣지 않으니 회오리바람은 돌아갔다. 혜공왕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大臣 김경신을 보내서 김유신의 능에 가서 잘못을 사과하고, 공덕보전 30結을 驚仙寺에 내려서 公의 명복을 빌게 했다. 취선사는 김유신이 평양을 토벌한 뒤에 복을 빌기 위하여 세웠던 절이다. 이때에 미추왕의 혼령이 아니었다면 김유신의 노여움을 막지 못했을 것이다. (『三國遺事』 紀異, 未鄒王竹葉軍).

혜공왕이 취선사에서<sup>86)</sup> 김유신의 명복을 빌게 했다면, 당시 김유신의 원찰은 봉성사가 아닌 취선사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의 설화는 오히려 봉성사를 김유신의 원찰로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다. [가-3]은 김유신이 신라 왕조에 원망을 가지게 된 경위를 밝힘으로서 봉성사에 절원당이 세워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절원당은 김유신의 원망을 달래기 위해 건립되었던 것이다.

김유신은 죽은 후에 신라의 호국신이 되었다. 그런데 혜공왕 6년(770) 경술년에 자손들이 죽음을 당하자<sup>87)</sup> 김유신은 조상신의 입장을 견지하여<sup>88)</sup> 김씨 시조왕인

84) 채미하, 2002, 앞의 글, p. 61.

85) 『三國史記』, 職官志, 奉聖寺成典; 이영호, 1983, 앞의 글, p. 100.

86) 『三國史記』, 列傳, 金庾信에도 취선사가 김유신의 원찰로 나타난다.

미추왕을 찾아가 원망을 털어놓았다. 원망의 대상은 ‘君臣’이었다. 해공왕까지도 비난했던 것이다.<sup>87)</sup> 해공왕은 두려워하여 김경신을 김유신 능에 보내 잘못을 사과했다. 절원당은 바로 이러한 김유신의 원망과 관련되었다고 본다.

그러고 보니 해공왕 4년(768)에 봉성사 밭에서 蓮이 피어난 후에 대공의 난이 발생한 것도 우연이 아닌 듯싶다. 호국신 김유신은 자신의 원찰인 봉성사를 통해 해공왕에게 다가올 위기를 알렸음에도 해공왕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그 결과로 해공왕 6년(770) 경술년에 김유신의 자손들이 희생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봉성사 창건연기설화를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첫째, 신충은 경덕왕대의 실존인물 신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김유신을 지칭한다. 둘째, 신문왕과 혜통은 김유신의 원찰인 봉성사를 완성하는데 관여했을 것이다. 김유신이 신문왕에 대해 원한을 품었다는 내용은 후대의 사건이 전대로 투영된 것이다.<sup>90)</sup> 셋째, 절원당은 해공왕 6년(770)에 희생된 김유신의 자손이 이후에 복권되면서 김유신의 원찰인 봉성사에 건립되었을 것이다. 절원당 건립에는 진표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넷째, 신충이 환생할 때마다 보복했다는 설화내용은 “김유신의 혼령은 당사자가 아닌, 冤死한 인물의 조상신으로서 후손의 解冤을 적극적으로 도모”<sup>91)</sup>하는 측면을 반영했다고 본다. 다시 말해, 김유신이 대대로<sup>92)</sup> 자신의 후손을 보호하는 조상신임을 강조한다. 다섯째,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는 김유신이 天神임을 강조하는 설화적 요소로 다음에서도 나타난다.

[가-4] 신문왕이 표문을 올려 말했다. “신라는 비록 작은 나라지만 聖臣 김유신을 얻어 삼국을 통일했으므로 太宗이라 한 것입니다.” 당황제가 표문을 읽고 생각해보니, 그가 태자일 때, “33天의 한 사람이 신라에 태어나서 김유신이 되었다”라는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적어두었는데, 그 적어둔 책을 꺼내 보고는 놀라고 두려움을 참지 못했다. 신라에 다시 사신을 보내어 태종의 칭호를 고치지 않아도 좋다고 했다. (『三國遺事』, 紀異, 太宗春秋公).

87) 이기백, 『新羅 惠恭王代의 政治的 變革』, 『사회과학』 2, 1958(재수록: 『신라 정치사회사 연구』, 일조각, 1974, p. 232).

88) 박대복, 1996, 앞의 글, pp. 195~198.

89) 권영오, 『新羅 元聖王의 즉위과정』, 『부대사학』 19, 1995, p. 152.

90) 신충과 신문왕의 관련성은 후대의 내용이 “점차 창건설화로 옮겨져 확대되었을”(이근직, 2006, 앞의 글, p. 86) 것이다.

91) 박대복, 1996, 앞의 글, p. 198.

92) 신충의 환생은 여러 번 이루어졌다(이근직, 2006, 앞의 글, p. 86).

다음은 절원당의 건립시점을 검토한다. 해공왕은 봉성사가 아닌 취선사에서 잘못을 벌였다. 그렇다면 봉성사에서 행하던 김유신의 추복은 해공왕 14년(778) 이전에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덕왕이 ‘奉聖寺成典’의 명칭을 ‘修營奉聖寺使院’으로 고쳤다는 기록이 職官志에 있으므로 경덕왕 18년(759)의 봉성사는 성전사원이었을 것이다.<sup>93)</sup> 따라서 경덕왕 18년까지는 성전사원 봉성사에서 김유신의 추복이 행해졌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봉성사에서 행해지던 김유신의 추복은 경덕왕 18년(759)과 해공왕 14년(778) 사이의 어느 시점에 중단되었을 것이다. 해공왕 6년(770)이 주목된다.

봉성사는 애장왕 6년(805)에 성전사원이었던 것으로 職官志에 나타난다.<sup>94)</sup> 봉성사의 성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 애장왕 6년(805) 전후의 봉성사에서는 김유신의 추복행사가 다시 행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공왕 14년(778) 이후, 애장왕 6년(805) 이전의 어느 시점에 김유신 세력의 復權이 이루어지면서 절원당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이 옳다면 봉성사는 김유신 자손의 得勢와 失勢에 따라 실제 寺格의 변화를 경험했을 것이다.

[다-3]의 내용에 기초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은 미추왕이 3번이나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김유신은 신라를 떠나지 않았고, 해공왕이 사과함으로써 문제는 일단락되었다고 본다.<sup>95)</sup> 그렇다면 절원당은 해공왕 14년(778)에서 해공왕 몰년(780) 사이에 착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유신은 취선사에서 올린 해공왕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해공왕 16년(780)에 다른 아님 김경신에 의해 해공왕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sup>96)</sup> 이를 기점으로 신라중대는 막을 내렸고, 김경신은 후에 원성왕(785~798)이 되어 신라 하대를 열었다. 결과를 두고 보면, 미추왕은 김유신의 노여움을 막지 못한 듯하다. 원성왕의 집권에는 김유신 세력이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sup>97)</sup> 김유신이 신라의 태조를 독대하여 王孫의 잘못을 따지는 無所不爲의 인물로 나타나는 [가-3]의 설화는 해공왕 당대보다는 신라 하대에서 생성되

93) 『三國史記』, 職官志, 奉聖寺成典; 이영호, 1983, 앞의 글, pp. 88~100.

94) 『哀莊王改爲令』(『三國史記』, 職官志, 奉聖寺成典).

95) 박대복, 1996, 앞의 글, p. 198; 이문기, 2004, 앞의 글, p. 44; 조유영, 2007, 앞의 글, p. 227.

96) 이기백, 1974, 앞의 책, p. 237.

97) 권영오, 1995, 앞의 글, p. 166; 신정훈, 「新羅 宣德王代の 政治的 推移와 그 性格」, 『대구사학』 65, 2001, p. 32; 김경애, 「新羅 元聖王의 卽位와 下代 王室의 成立」, 『한국고대사연구』 41, 2006, p. 272.

있을 가능성이 높다. 원성왕을 미화하는<sup>98)</sup> 다양한 설화와의 관련성이 의심된다, 그렇다면 절원당 건립은 宣德王대 혹은 늦어도 원성왕대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상으로서 봉성사가 김유신의 원찰로 창건된 이유, 봉성사가 ‘信忠奉聖寺’ 혹은 ‘奉聖神忠寺’로 표현된 이유, 봉성사가 신라후대에 거대사찰로 나타나는 이유, 봉성사가 신라왕실의 위기를 예견했던 이유, 봉성사가 성전사원이었던 이유, 봉성사에 절원당에 세워진 이유와 시기를 밝혔다. 끝으로 봉성사가 나타나는 『삼국유사』의 부례랑 설화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99)</sup>

[가-5] 효소왕 2년(693)에 국선 부례랑이 잡혀간 후에 만파식적도 없어졌다. 부례랑의 부모가 백률사에서 빌었더니 부례랑과 만파식적이 모두 돌아왔다. 백률사 주지를 奉聖寺로 옮기고, 부례랑을 大角干으로 봉하고, 부례랑의 아버지인 아찬 대현을 太大角干으로 봉했다.

만파식적을 찾은 공로로 부례랑을 김유신이 최초로 받았던 官階인 大角干에 봉하고, 아찬(6관등) 大玄을 김유신이 받았던 신라 최고의 官階인 太大角干에 봉했다는 내용은 설화적 요소로 판단된다.<sup>100)</sup> [가-5]는 만파식적의 귀중함을 역설하는데, 주지하다시피 만파식적은 문무왕과 김유신이 신문왕에게 내려준 보물이며, 당시 신문왕의 태자였던 효소왕도 祇林寺 서쪽으로 나아가 보물을 맞이했었다.<sup>101)</sup> 이처럼 귀중한 만파식적을 찾는데 기여한 백률사 주지는 어디로 옮겨갔어야 마땅했을까? 문무왕의 원찰 혹은 김유신의 원찰이었을 것이다. 백률사 주지는 봉성사로 옮겨갔다고 한다.

### Ⅲ. 망덕사의 본원적 성격

경주시 배반동 956번지의 망덕사지에는 금당, 목탑, 계단, 회랑 등의 흔적과 당간지주가 남아있다. 이곳에서는 1906년에 “뛰어나게 아름다운 寶相華紋이 새겨진

98) 『三國遺事』, 紀異, 元聖大王; 특히 785년 1월 13일 경에 경주에 큰 비가 내려 闕川을 건널 수 없었다는 내용(『三國史記』, 宣德王 6年, 元聖王 元年)은 사실로 믿기 어렵다.

99) 『三國遺事』, 塔像, 栢栗寺; 同書, 紀異, 萬波息笛.

100) 이영호, 1993, 앞의 글, p. 284.

101) “太子理恭[即孝昭大王]守關 聞此事 走馬來賀”(『三國遺事』, 紀異, 萬波息笛).

벽돌과”<sup>102)</sup> 오래된 기와가 수습되었고, 1969년과 1970년의 발굴조사를 통해 가람 배치가 확인되었으며,<sup>103)</sup> 1982년에 목탑의 석조상륜으로 추정되는 석주가 수습되었다.<sup>104)</sup>

망덕사의 완성시점은 『삼국사기』에서 신문왕 5년(685), 『삼국유사』에서 효소왕 6년(697)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신문왕 5년을 받아들이며, 효소왕 6년이라는 기록은 별도로 검토하겠다. 신문왕 5년에 완성된<sup>105)</sup> 망덕사는 문무왕 말기에 착공되었을 것으로 본다.

문헌기록에서 망덕사는 당과 관련된 사찰로 나타난다. 『삼국사기』는 망덕사가 당을 위한 사찰이기 때문에 ‘望德寺’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sup>106)</sup> 『삼국유사』는 당황실의 복을 빌기 위해<sup>107)</sup> 혹은 당황제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sup>108)</sup> 건립되었다고 한다. 이런 기록들에 따르면 망덕사는 당과 관련되었음이 분명하다. 더욱이 망덕사에 관한 고유기록이 다른 사서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sup>109)</sup> 이러한 범위를 벗어난 추론은 일견 불가능해 보인다.

모든 史書에서 당 황제를 위한 사찰로 나타나는 망덕사는 소위 ‘뜨거운 감자’라고 하겠다. 이러한 기록들이 사실이라면, 망덕사는 신라의 사대주의적 태도와 굴욕적인 자세를 증명하는 부끄러운 유물일 수밖에 없겠다. 그런 이유때문인지, 지금까지 망덕사에 관한 연구는 가람배치,<sup>110)</sup> 13층 목탑,<sup>111)</sup> 발견된 유적에<sup>112)</sup> 국한

102) 今西龍, 이복오 譯, 「신라 舊都 경주의 地勢와 遺蹟·遺物」, 『신라사학보』 9, 2007, p. 227.

103) 한국미술사학회, 「望德寺址發掘」, 『고고미술』 104, 1969, p. 26; 同학회, 「慶州望德寺址發掘」, 『고고미술』 106, 1970, p. 43; 차순철, 「망덕사 동·서목탑지 발굴조사 개보」, 『경연고고』 18,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p. 5; 退藏遺構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유물이 공개된 바가 있다(김태식, 「경주 망덕사지 유물 40년 만에 공개」, 연합뉴스, 2009년 3월 19일 신문기사).

104) 경주문화원 홈페이지(<http://www.silla.or.kr/gyeongju/histspot-p03.html>).

105) “望德寺成”(『三國史記』, 神文王 5年 4月).

106) “其國爲唐立此寺 故以爲名”(『三國史記』, 景德王 14年).

107) “始創望德寺 將以奉福唐室”(『三國遺事』, 感通, 眞身受供).

108) “祝皇壽萬年 長開法席而已”(『三國遺事』, 紀異, 文虎王法敏).

109) 『三國史節要』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을 모두 참조했다. 『林下筆記』, 文獻指掌, 望德寺塔과 『海東釋史』, 釋志, 寺刹, 望德寺는 『三國史記』를 인용했고, 『東史綱目』, 孝昭王 2年은 『三國遺事』를 따랐다.

110) 강강철, 「雙塔가람 配置計劃의 變化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pp. 23~29; 조유진, 「7~8세기대 신라 사찰가람의 배치와 특징」, 『신라호국의 염원 사천왕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8, p. 21.

되었고, 사찰을 창건한 동기, 목적, 의미에 관한 연구는 단 한건도 진행된 바가 없다. 연구의 부재는 망덕사 관련기록의 세밀한 검토를 불가능하게 했고, 이에 따라 망덕사가 당과 관련되었다는 인식은 더욱 고착화되었다고 본다. 지금까지 망덕사 관련기록은 사료 비판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려왔던 것이다.

이제 망덕사가 과연 “奉福唐室”, 즉 당황실의 복을 받들기 위해 창건되었는가를 평가해 본다. 망덕사는 신문왕 5년(685)에 완성되었는데, 나당전쟁(670~676)이 종료된 지 9년 뒤이다. 나당전쟁은 신라가 675년에 매소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676년에 기벌포 해전에서 다시 대승함으로써 종료되었다.<sup>113)</sup> 당의 한반도 퇴출은 신라의 강력한 대항이 없었더라면 물론 불가능했다.<sup>114)</sup> 또한 당의 물자 보급로 확보의 어려움도 간과할 수 없다.<sup>115)</sup> 그러나 나당전쟁이 중단된 가장 큰 이유는 토번(티베트)에 있었다.<sup>116)</sup> 676년에 토번에서 왕위계승문제로 내분이 일어나자 당은 토번 공략에 전력을 기울였다.<sup>117)</sup> 이에 나당전쟁은 소강상태에 돌입했던 것이다.

나당전쟁 이후에 양국관계는 급속히 냉각했다. 우리학자들은 ‘국교단절’, 중국학자들은 ‘냉동관계’라는 용어로 문무왕 후기부터 성덕왕 초기까지의 양국관계를 표현한다.<sup>118)</sup> 당고종은 678년에 신라를 재차 침공하려 했으나 토번 정벌이 시급하다는 주위의 만류로 실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당의 침공위협이 해소된 것은 아니었으며,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당이 신라를 재침공할 가능성은 엄연히 존재했다.<sup>119)</sup>

- 
- 111) 김정수, 「望德寺十三層木塔의 形態推定에 관한 研究 -文化財와 現址 踏査를 中心으로」 『대한건축학회지』 119, 1984, pp. 4~12.
- 112) 진홍섭, 「망덕사지의 계단지」 『고고미술』 6, 1965, pp. 32~33.
- 113) 『三國史記』, 文武王 15年 및 16年.
- 114) 신형식, 「삼국통일전후 신라의 대외관계」 『신라문화』 2, 1985, pp. 16~17.
- 115) 서영교, 「羅唐戰爭과 吐蕃」 『동양사학연구』 79, 2002, p. 10; 이상훈, 「당의 군사전략을 통해 본 나당전쟁기의 매소성 전투」 『신라문화』 29, 2007, pp. 89~123.
- 116) 安東都護였던 薛仁貴가 760년 토번전투에 투입되었지만 참패했고 關中지역 군단도 연전연패했다. 이로서 당은 실크로드의 주요통로인 타림분지의 대부분을 상실했고, 680년까지 지속된 토번의 공격을 받았다(서영교, 「新羅 長槍幢에 대한 신고찰」 『경주사학』 17, 1998, p. 42).
- 117) 서영교, 2002, 앞의 글, pp. 18~22. 675년에 신라 공략을 책임졌던 李謹行은 676년에 토번 전선에 투입되었다(『新唐書』 卷110, 列傳 35, 李謹行).
- 118) 拜根興, 「7세기 중엽 나당관계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p. 261.
- 119) 서영교, 2002, 앞의 글, p. 22; 최민희, 2002, 앞의 글, p. 26; 서보경, 「7세기 후반~8세기 전반의 신라와 일본 관계: 왜전의 별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32, 2007, p. 23.

한편 신라는 문무왕 16년(676)부터 효소왕대(692~702)까지 급진적으로 군비를 확장했는데, 신문왕이 재위 3년(683)부터 8년(688)까지 신설한 九誓幢 5개 부대는 신라의 주력이었던 六停 군단에 맞먹는 규모였다고 한다.<sup>120)</sup> 전쟁이 종료되면 군비축소가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신라는 군비확장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는 신라가 당과의 또 다른 일전을 준비했다는 증거이다.<sup>121)</sup>

과연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신문왕은 재위 5년(685)에 당황제의 복을 빌기 위해 망덕사를 창건했던 것일까? 동서고금을 통 털어 전쟁에서 적군을 성공적으로 물리친 후에 적국 우두머리를 축복하기 위한 종교적 건축물을 건립한 예는 없을 것이다. 혹시라도 신라가 당과의 평화를 절실히 원하여 굴욕적인 자세를 취해 당 황제를 위한 절을 신라 땅에 지었을 가능성은 없다. 만에 하나라도 그랬더라면, 신라는 당과의 우호적 접촉을 먼저 시도했을 것임이 분명하다. 문무왕 16년(676)부터 신문왕 5년(685)까지 나당 간에 朝貢과 같은 우호적 교섭기록이 전혀 없었음은<sup>122)</sup> 망덕사가 당 황제를 위한 사찰이 아니었음을 입증한다. 망덕사에 관한 기록들은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상식을 벗어난 허구적 내용들이 역사적 사실처럼 서술되어 있는데, 이러한 서술들이 여과 없이 수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제 망덕사 창건연기설화를 검토해 본다. 망덕사 창건연기설화는 『삼국유사』의 文虎王法敏조의 일부인데,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천왕사 창건연기설화와 연결이 되어 있다. 사천왕사 창건연유를 먼저 살펴보면, 대략 [나-1]과 같다.

[나-1] 신라는 당이 공격해 올 것을 알고 선제공격했다. 이듬해에 당 고종은 김인문을 불러서 이를 꾸짖고 감옥에 가두었다. 김인문은 당에 있던 의상에게 당의 신라 침공계획을 전했고, 의상은 귀국하여 이를 신라조정에게 알렸다. 문무왕은 명랑법사에게 명령하여 경주 낭산 아래에 절을 지어 당군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상황이 급박하여 명랑법사는 임시로 채색비단으로 절의 경계를 두르고, 짚으로 五方神을 만들고, 유가계열의 승려들을 모아서 문두루 비법을 읊었다. 이에 침공해 오던 당의 배가 모두 침몰되었다. 그 후에 이 절을 고쳐지어 사천왕사라고 했다.

120) 서영교, 2000, 앞의 글, pp. 225~262; 서영교, 「羅唐戰爭期 唐兵法의 導人과 그 意義」, 『한국사연구』 116, 2002, pp. 55~61.

121) 감은사는 원래 문무왕이 용이 되어 倭를 제압하고자 세운 절이라고 한다(“文武王欲鎮倭兵”, 『三國遺事』, 紀異, 萬波息笛). 그러나 문무왕용은 왜군, 당군할 것 없이 신라를 침공하는 모든 적군을 물리치고자 했을 것이다.

122) 신형식, 「羅唐間의 朝貢에 대하여」, 『역사교육』 10, 1967, p. 94.

[나-1]에서 김인문이 투옥되었다지만, 학계의 통설은 투옥된 인물이 김흠순과 김양도였으며,<sup>123)</sup> 김인문은 아니었을 것이라 한다.<sup>124)</sup> 당의 침공소식은 김흠순의 의상을 통해 전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의상이 침공계획을 전했을 가능성은 신중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670년 1월에 당을 출발한 김흠순은 670년 7월에 귀국했는데,<sup>125)</sup> 의상은 이보다 늦은 함형 2년(671)에<sup>126)</sup> 귀국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당의 침공소식은 김흠순이 문무왕에게 직접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인문이 감옥에서 당의 침공소식을 전해옴에 따라 문두루 비법을 읊었다는 설화내용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이때 김인문은 투옥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671년 7월의 『薛仁貴書』는 “형은 역적의 우두머리가 되고, 아우는 충신이 되어”<sup>127)</sup>라고 했는데, 여기서 형은 문무왕이며 아우는 김인문이다. 김인문은 삼국통일과정에서 혼신의 힘을 바쳐 일했는데, 문무왕 8년(668)에 마지막 입당을 한 후에도 당황제를 시위하는 자신의 직무에 또한 충실했던 것으로 보인다.<sup>128)</sup>

아래부터 망덕사 창건연기설화가 전개된다. 설화의 正文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고찰한다.

[나-2] 신미년에 당은 趙憲을 장수로 하여 5만 명의 군사로 다시 쳐들어왔다. 또 그 비법을 썼더니 당의 배가 이전과 같이 침몰했다. 이때 한림랑 박문준이 김인문과 함께 옥에 갇혀있었는데 고종은 박문준을 불러서 물었다. “너희 나라에는 무슨 비법이 있기에 내가 두 번이나 큰 군사를 보내었는데도 살아 돌아온 자가 없는가?” 박문준이 답했다. “저희들은 상국에 은지가 십년이 넘었기에 신라에서 벌어진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멀리서 한 가지 일을 들었습니다. 신라는 상국의 은혜를 두텁게 입어 삼국을 통일하였기에 은덕을 갚으려고 낭산 남쪽에 새로 천왕사를 지어 황제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법석을 같이 열고 있다고 합니다.”

123) “又遣欽純角干良圖波珍滄入唐謝罪”(『三國史記』, 文武王 9年 5月); “高宗許欽純還國 留囚良圖終死于囚獄”(『三國史記』, 文武王 10年 1月).

124) 권덕영, 「비운의 신라 건당사들: 김인문을 중심으로」,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15, 1994, pp. 244~247; 김상현, 「사천왕사의 창건과 의의」,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17, 1996, pp. 127~128; 권덕영, 「김인문 小傳」 『문화사학』 21, 2004, pp. 429~430.

125) “至七月入朝使金欽純等至”(『三國史記』, 文武王 11年, 「答薛仁貴書」).

126) “咸亨二年 湘來還新羅”(『三國遺事』, 塔像, 前後所將舍利).

127) “兄爲逆首 弟作忠臣”(『三國史記』, 文武王 11年, 「薛仁貴書」).

128) “自後侍衛宮禁 多歷年所”(『三國史記』, 列傳, 金仁問, 摠章元年戊辰).

趙憲은 중국 사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인물이며, 당의 병선이<sup>129)</sup> 문두루 비법에 의해 두 번이나 침몰했다는 것은 설화적 요소이다.<sup>130)</sup> 문무왕 11년인 신미년(671)에 정체불명의 인물인 박문준이 당고종에게 “천왕사를 지어서 황제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면, 뻔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신미년(671)의 경주 남산 아래에는 사천왕사가 없었다. 사천왕사는 문무왕 19년(679)에 완성되었다.

또한 천왕사에서 과연 황제의 만수무강 축원이 가능한가는 신중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천왕사는 사천왕사를 의미하며,<sup>131)</sup> 사천왕은 불국토를 수호하는 天神들이며, 사천왕신앙이 호국불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sup>132)</sup>은 물론이다. 중국은 남북조시대(439~580)부터 사천왕상을 제작했고, 사천왕 사상을 신라에 전파했다.<sup>133)</sup> 따라서 사천왕사는 당으로부터 신라를 수호하기 위함일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당 황제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나-3] 고종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禮部侍郎 樂鵬龜를 신라로 보내 절을 살펴보도록 했다. 신라왕은 당의 사신이 온다는 소식을 먼저 듣고, 천왕사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 하여 사천왕사의 남쪽에 새 절을 지어놓았다. 사신이 도착하여, “먼저 황제의 만수를 비는 천왕사에 가서 분향하겠소”라고 했다. 이에 새로 지은 절로 그를 안내하자, 사신은 절 문 앞에서, “不是四天王寺 乃望德遙山之寺”라고 하고는 끝내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금 1,000냥을 주었더니, 사신은 돌아가서 아뢰기를, “신라는 천왕사를 지어 놓고 황제의 만수를 빌고 있었을 뿐입니다”라고 했다. 이에 사신의 말에 따라 절 이름을 망덕사라고 했다. [주석: 혹은 효소왕 때의 일이라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당고종은 신문왕 3년(683) 12월에 죽었다. 따라서 당고종이 樂鵬龜를 통해 신문왕 5년(685)에 완성된 망덕사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

129) 당의 조운선 70척이 격파되었다는 기록은 있다(『三國史記』, 文武王 11年 10月 6日).  
 130)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문두루 비법의 시행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고려태조도 유사한 비법을 사용했다(『三國遺事』, 神呪, 明朗神印). 전쟁에 앞선 종교 의식의 거행은 보편적이라 본다.  
 131) 『金光明經』, 四天王品에 나타난다(길기태, 『백제의 사천왕신앙』, 『백제연구』 39, 2004, p. 133). 망덕사 창건연기설화의 뒷부분에서도 확인된다.  
 132) 길기태, 2004, 위의 글, pp. 131~155; 옥나영, 「관정경과 7세기 신라 밀교」, 『역사와 현실』 65, 2007, pp. 268~269.  
 133) 심영신,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상 연구」, 『미술사학연구』 216, 1997, p. 15; 심효섭, 「신라 사천왕신앙의 수용과 전개」, 『동국사학』 30, 1996, p. 117.

다. 지금까지 樂鵬龜는 실존인물로 평가되어 왔다.<sup>134)</sup> 그러나 樂鵬龜는 중국 史書에서 확인되지 않는 정체불명의 인물이다.<sup>135)</sup> 만일 그가 禮部侍郎이었다면 신라로 파견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예부시랑의 품계는 正四品下인데,<sup>136)</sup> 이처럼 높은 품계의 관리가 신라에 사신으로 파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sup>137)</sup> ‘樂鵬龜’라는 이름의 ‘樂’은 ‘즐거다’, ‘鵬’은 ‘크다’, ‘龜’는 ‘오래도록’이라는 의미이다. 뇌물과 향응에 취약하도록 설정된 설화적 인물로 볼 수 있다. 樂鵬龜에게 주었다는 금 1,000냥도 설화적 표현이며, 실제 뇌물 액수는 아닐 것이다. 문두루 비법을 행했다는 明朗은 용궁에서 금 1,000냥을 시주받았다고 하며, 원성왕은 일본 왕이 금 1,000냥으로 만파식적을 얻고자하는 것을 거절했다고 한다.<sup>138)</sup> 사천왕사를 숨기기 위해 지었다는 망덕사가 사천왕사와 불과 300미터 거리에 있는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sup>139)</sup>

[나-4] 신라왕은 박문준이 이야기를 잘했기 때문에 황제가 용서해 줄 뜻을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強首선생에게 명하여 김인문의 석방을 청하는 표문을 지어 舍人 원우를 당에 보냈다. 황제는 표문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는 김인문을 사면하고 위로하여 돌려보냈다. 김인문이 옥중에 있을 때 국민은 그를 위해 절을 지어 인용사라 하고 관음도량을 열었는데, 인문이 돌아오다가 바다 위에서 죽었으므로 미타도량으로 고쳤다. 지금도 인용사가 남아 있다.

김인문이 귀환직전에 감옥에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그는 말년에 황제를 호위하는 장군이었으며, 품계는 正二品에 달했다.<sup>140)</sup> 그의 석방을 요청했다는

134) 특히 “천룡사가 파괴되면 신라가 망할 것”이라는 樂鵬龜의 예언이 『三國遺事』, 塔像, 天龍寺조에 나타나므로 樂鵬龜의 신라방문은 사실로 여겨져 왔다.

135) 중국의 史書, 野史, 筆記, 金石文에 樂鵬龜 기록은 없다(拜根興, 「나당전쟁 연구 중의 몇 가지 문제」 『중국학보』 46, 2002, p. 256). 拜根興이 비정한 樂彦瑋는 禮部侍郎이 아니었다(『舊唐書』 卷81, 列傳 31, 樂彦瑋).

136) “禮部 侍郎一員 正四品下”(『舊唐書』 卷42, 志22, 職官1, 禮部).

137) 孝昭王 4년(695)에 朝散大夫(從五品下), 孝成王 2년(738)에 左贊善大夫(正五品上), 景德王 2년(743)에 贊善大夫(正五品上), 惠恭王 4년(768)에 倉部郎中(從五品上), 宣德王 6년(785)에 戶部郎中(從五品上)이 파견되었다.

138) 『三國遺事』, 神呪, 明朗神印; 同書, 紀異, 元聖大王.

139) 장성운, 「망덕사지」, 울산여성신문, 2008년 11월 3일 신문기사.

140) 載初 元年(神文王 10年: 690)의 金仁問의 관작인 輔國大將軍은 正二品の 武散官(『舊唐書』 卷42, 志22, 職官1), 上柱國은 正二品の 勳官(『舊唐書』 卷42, 志22, 職官1)이며, 開

표문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舍人 관등의 신라 하급관리가 당황제에게 표문을 전달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았을 리도 없다.<sup>141)</sup> 김인문이 신라로 돌아오는 바다 위에서 죽은 것도 아니다. 당나라 長安에서 병이 들어 효소왕 3년(694) 4월 29일에 66세의 나이로 죽었는데, 그의 유해는 朝散大夫 陸元景이 신라로 호송하여 효소왕 4년(695) 10월 27일에 경주 서쪽에 묻혔다.<sup>142)</sup>

이상으로 사천왕사 및 망덕사 창건연기설화의 허구성을 장황하게 살펴보았다. 문무왕 11년(671)에 거행된 문두루비법을 숨기기 위해 그보다 14년이나 뒤인 신문왕 5년(685)에 망덕사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설화내용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본다. [나-1]은 ‘사천왕사 창건연기설화’이며, [나-2]부터 [나-4]까지는 ‘망덕사 창건연기설화’이다. 그런데 [나-1]부터 [나-4]까지의 전체내용은 김인문의 억울한 투옥을 시발로 하며, 김인문의 쓸쓸한 죽음으로 끝맺는다. 따라서 [나-1]부터 [나-4]까지의 전체 내용을 ‘김인문 설화’로 볼 수 있다. 주인공은 물론 김인문이며, 설화내용이 文虎王法敏조의 일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심사상(motive)은 ‘悲運의 王弟’ 정도가 될 것이다. 결국 ‘김인문 설화’ 속에 사천왕사와 망덕사의 창건연기설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설화 속에서 김인문은 내내도록 감옥에 갇혀있었다. 굳이 말하자면 문무왕 10년(670)경부터 효소왕 3년(694)까지이다. 김인문은 문무왕 8년(668)에 40세의 나이로 7번째로 입당하여 당의 고위관리이자 장군으로 평생을 보낸 것이 분명한데,<sup>143)</sup> 설화는 옥살이를 했다고 한다. 이는 김인문이 당에서 보낸 삶 자체가 옥살이와 같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실제로 투옥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당의 감옥에 있던 김인문’을 ‘당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던 김인문’으로 대체하여 기록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인문이 의상을 통해 침공소식을 전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흠순은 당고종이 구상했던 신라와 백제간의 영토분할계획을 담은 지도를 가지고 문무왕 10년(670) 7월에 돌아왔다.<sup>144)</sup> 이에 신라는 통일전쟁 이전으로의 회귀를 거부하고, 나당전쟁에 돌입했던

國公 封爵에는 食邑 三千戶가 주어졌고(『新唐書』 卷46, 志36, 百官1, 吏部), 左羽林軍 將軍은 北衛禁兵을 지휘하여 皇帝를 호위했다(『舊唐書』 卷44, 志24, 職官2, 武官).

141) 舍人은 大舍(12관등)와 舍知(13관등)을 총칭한다(『三國遺事』, 興法, 原宗興法厭鬻減身). 669년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金欽純은 角干(1관등), 金良圖는 波珍滄(4관등)이었다.

142) 『三國史記』, 孝昭王 3年; 同書, 列傳, 金仁問.

143) 김인문은 上元 元年(文武王 13年: 673)에 右驍衛 員外大將軍 臨海郡公, 調露 元年(文武王 19年: 679)에 鎮軍大將軍 行右武威衛 大將軍, 載初 元年(神文王 10年: 690)에 輔國大將軍 上柱國 臨海郡開國公 左羽林將軍이었다(『三國史記』 列傳, 金仁問).

것이다. 김인문이 개입했을 여지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김인문이 당의 침공계획을 알려 문두루 비법이 행해졌고, 이후에 그곳에 사천왕사가 건립되었다는 설화내용은 다음 사건과 관련되었을 여지가 있다. 당고종은 儀鳳 3년(678) 9월에 신라를 재침공하려 했다. 그러나 신임했던 張文瓘이 병든 몸을 이끌고 입궐하여 “신라는 비록 순종하지 않으나 우리의 국경을 쳐들어온 적이 없고, 신라와 토번을 동시에 공격하면 東西에 모두 적을 두는 것이므로 백성들의 폐해가”<sup>145)</sup> 크다고 말해 포기했다. 이 소식이 신라에 알려진 것이 儀鳳 4년(679)이었고, 신라는 나당전쟁이 비로소 진정국면에 돌입했다고 판단하여 ‘儀鳳四年皆土’를 선언했다.<sup>146)</sup>

당 조정에서 벌어진 이러한 논란과 당의 신라 재정벌 포기결정을 신라에 알린 인물이 궁금해지는데, 당시 나당관계가 냉전상태였음을 감안한다면 당에 있던 김인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일 이러한 추측이 허용된다면, ‘김인문이 당의 감옥에서 의상을 통해 침공계획을 신라에 알렸다’는 설화내용은 ‘당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던 김인문이 당의 신라 재침공 포기결정을 신라에 알렸다’가 윤색되어 나당전쟁 초기로 투영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는 ‘문두루 비법의 시행’이 아닌 ‘사천왕사의 시창’이라고 할 것이다.

김인문이 신라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특정한 시점의 단 한번으로 보기 어려울 지도 모른다. 김인문이 신미년(671) 이전의 침공계획을 細作을 통해 미리 알렸을 가능성도 있고, 674년의 문무왕 관직삭탈 및 김인문 신라왕 책봉에<sup>147)</sup> 이은 당의 침공을 미리 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의 신라정벌 포기결정은 신라로의 누출이 발각되더라도 큰 문제를 야기할 성격은 아니었다고 본다. 이에 김인문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

김인문 설화 내에서 김인문은 망덕사와 직접적인 관련을 보이지 않는다. 당고종을 기만했던 사람은 詳文師<sup>148)</sup> 박문준와 禮部侍郎 樂鵬龜였으며, 신라왕과 국민들이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박문준와 樂鵬龜의 정체가 모호하고, 설화 전반에 걸쳐 시간의 왜곡이 심각하며, 망덕사를 지어 사천왕사를 은폐하려 했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창건 연기설화에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은 인용사에 관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

144) 『三國史記』, 文武王 11年, 「答薛仁貴書」.

145) 『舊唐書』 卷 85, 列傳 35, 張文瓘; 『唐書』 卷113, 列傳 38, 張文瓘.

146) 최민희, 2002, 앞의 글, p. 12.

147) 『三國史記』, 文武王 14年.

148) 翰林郎의 당대 명칭은 詳文師이다(『三國史記』, 職官志, 詳文師).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인문이 마지막으로 입당하여 당에서 체류한 문무왕 8년(668)부터 효소왕 3년(694)까지의 기간 내에 사천왕사와 망덕사가 건립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망덕사 창건연기설화가 비록 원형을 알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윤색되었지만, 김인문 설화에 포함된 점은 김인문과 망덕사간에 어떤 실질적 연관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望德寺’는 당과 관련되었다는 전제하에서 ‘당황제의 德을 갈망하는 절’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고종은 적어도 문무왕과 신문왕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德의 인물이 아니었다.<sup>149)</sup> 나당전쟁을 일으킨 바 있었고, 신라 정벌을 포기하지 않았던 당고종에게서 德을 기대했을 리도 없다. 그렇다면 ‘望德’의 진정한 대상이 관건이 된다.<sup>150)</sup>

이제 망덕사의 본원적 성격을 고찰해 본다. ‘望德’은 문자 그대로 ‘덕을 그리워하다 혹은 갈망하다’라는 의미일 것이다. 원성왕이 “보은사와 望德樓를 세우고 조부를 흥평대왕으로 추봉했다”<sup>151)</sup>는 기록과 “충청도 서천군 천방산에 望德寺가 있다”<sup>152)</sup>는 후대 기록은 ‘望德’의 대상이 건축물의 건립목적에 따라 다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문무왕 및 신문왕 대의 ‘望德’과 관련된 인물을 찾으면 되겠다. 태종 무열왕임이 틀림없다.

문무왕은 부왕이 죽자 묘호를 太宗이라 했다. 太宗이라는 묘호는 매우 특별하다. 공이 높은 왕은 祖가 되고, 德이 높은 왕은 宗이 된다.<sup>153)</sup> 그런데 태종이라는 묘호는 공과 덕을 모두 갖춘 왕에게만 주어진다.<sup>154)</sup> 당대 왕조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 하겠다. 太宗은 太祖와 함께 五廟에서 世世不毀하며 숭상되는 至尊이었다.<sup>155)</sup>

주지하다시피 태종이라는 묘호는 貞觀之治로 후세제왕의 모범이 된 李世民(재위: 626~649)의 묘호였다. 문무왕이 무열왕(654~661)을 신라 태종으로 추봉하자,

149) 문무왕의 당고종에 대한 평가는 “兩國未定平 蒙指蹤之驅馳 野獸今盡 反見烹宰之侵逼”(『三國史記』, 文武王 11年)에 나타난다.

150) 이러한 형태의 추론은 이근직(2006)의 연구방법론을 답습한 것이다.

151) 『三國遺事』, 紀異, 元聖大王.

15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9, 忠清道, 舒川郡, 佛宇.

153) 채미하, 「新羅 惠恭王代 五廟制의 改定」, 『한국사연구』 108, 2000, p. 46; 김용천, 「前漢 元帝期 韋玄成의 宗廟制論」, 『동양사학연구』 95, 2006, pp. 28~32.

154) 『三國史記』, 神文王 12年. 『三國遺事』, 紀異, 太宗春秋公.

155) 太宗이 不毀之宗이라는 인식은 이미 漢代부터 형성되었다(나희라, 「신라의 종묘제 수용과 그 내용」, 『한국사연구』 98, 1997, p. 73, 각주 55). 따라서 “무열왕의 神位가 한 때 오묘에서 철취되었다”(황선영, 「新羅의 廟制와 廟號」, 『동의사학』 5, 1989, pp. 14~15) 등의 견해는 再考의 여지가 있다.

당은 분수에 넘친다며 개칭을 요구했다. 이에 신문왕은 “선왕 춘추는 자못 어진 德이 있었고, 더욱이 생전에 良臣 김유신을 얻어 한마음으로 정치를 하여 삼한을 통일하였으니, 그 功을 이룩한 것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없다”<sup>156)</sup>고 했다. 결국 功은 김유신과 함께 쌓았지만, 德은 무열왕 자신이 쌓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망덕사는 바로 이러한 태종무열왕의 德을 기린 것으로 판단된다.

황복사지에서 발견된 비편은 이러한 추론의 적절함을 뒷받침한다. 이 비편은 ‘□德太宗寺’로 판독되는데,<sup>157)</sup> 德과 太宗간의 불가분 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보여 준다. 만일 결자가 ‘望’이라면 ‘望德太宗寺’로 망덕사가 태종무열왕의 원찰임을 증명하므로 본 논의를 계속할 필요조차 없다. 결자가 ‘奉’이라면 ‘奉德太宗寺’로 봉덕사가 신라 태종의 원찰임을 입증한다. 그러나 결자가 ‘望’도 ‘奉’도 아닐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황복사지 비석에 등장 가능한 사찰은 신라 왕실에 의해 창건된 국찰일 것이므로 ‘□德太宗寺’를 望德寺 혹은 奉德寺 이외의 사찰로 상상하기는 어렵다. 결자에 전혀 상관없이 德과 太宗간의 不可分 관계는 부정할 수가 없다.

윤선태(2000)는 결자를 ‘奉’으로 추정했다.<sup>158)</sup> 그 이유는 곧 밝히겠지만, 필자도 일단 결자가 ‘奉’일 확률이 높다고 본다. 그렇다면 ‘奉德太宗寺’ 비편은 봉덕사가 태종무열왕의 원찰이었음을 증명할 뿐이지, 망덕사가 태종무열왕의 원찰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지적은 타당하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망덕사 역시 태종무열왕의 원찰이었을 가능성을 무시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표 1> 신라의 成典사원과 망덕사

사원	사원의 완성시점	사원의 성격
사천왕사	문무왕 19년(679)	삼국통일 기념 사원
망덕사	신문왕 5년(685) 4월	?
봉성사	신문왕 5년(685) 3월	?
감은사	신문왕 2년(682)	문무왕의 원찰
봉덕사	성덕왕 6년(707)	태종무열왕의 원찰
봉은사	원성왕 10년(794)	
영묘사	선덕여왕 4년(635)	
영흥사	법흥왕 22년(535)경	

156) 『三國史記』, 神文王 12年.

157) 윤선태, 2000, 앞의 글, p. 6.

158) 윤선태, 2000, 앞의 글, p. 10.

이제 망덕사가 태종무열왕의 원찰이며, 봉성사가 김유신의 원찰이라는 명제를 동시에 평가한다. <표 1>은 신라의 7개 성전사원인 사천왕사, 봉성사, 감은사, 봉덕사, 봉은사, 영묘사, 영흥사에 성전사원으로 나타나지 않는 망덕사를 추가한 것이다. 망덕사는 색칠을 하여 구분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망덕사와 봉성사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있다. 물음표로 표시했다.

영흥사성전이 신문왕 4년(684)에 설치되었다는 『삼국사기』, 직관지의 기록에 주목한다.<sup>159)</sup> 영흥사는 법흥왕 22년(535)에 착공되었는데, 약 150년이 지난 신문왕 4년에 이르러서야 성전이 설치되었다. 중고기의 사찰인 영흥사를 관리할 성전이 신문왕 4년에 설치되었다면, 역시 중고기의 사찰인 영묘사에도 신문왕 4년에 성전이 설치되었을 것이다.<sup>160)</sup> 이에 대한 학자들 간의 異見은 없다.<sup>161)</sup>

그런데 신문왕 4년에는 영흥사(535)와 영묘사(635)뿐만이 아니라 봉성사(685)에도 성전이 설치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sup>162)</sup> 다시 말해, 신문왕 4년의 성전설치는 이듬해인 신문왕 5년에 완성될 사찰의 관리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이다. 문무왕 17년(677)에 永昌宮성전이 설치된 이후,<sup>163)</sup> 문무왕 19년(679)에 사천왕사가 완성될 즈음 그리고 신문왕 2년(682)에 감은사가 완성될 즈음에도 설치되지 않았던 영흥사성전과 영묘사성전이 신문왕 4년에 설치된 이유는 신문왕 5년에 완성될 국찰의 관리를 위해 성전을 설치하면서 기존의 왕실관련 중요사찰에도 성전을 설치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신문왕 5년에 완성된 사찰은 다수의 사찰에 대한 성전설치를 유발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졌음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 신문왕 5년에 완성된 사찰은 사천왕사와 감은사보다도 오히려 더욱 지극히 고귀한 성전사원이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신라의 왕도에 대규모의 2개 국찰이 신문왕 5년(685)에 거의 동시에 완성된 것을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다. 만일 봉성사가 원귀를 위한 원찰이었고, 망덕사가 당과 관련된 사찰이었다면, 이처럼 상호 무관한 2개 사찰이 거의 동시에 완성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성격의 사찰운명을 위해 신문왕 4년에 성전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데에 있다.

159) 영흥사와 봉은사에 대해서만 성전설치 시기에 관한 기록이 있다(『三國史記』, 職官志).

160) 이영호, 1983, 앞의 글, p. 108.

161) 채상식, 1984, 앞의 글, p. 101; 윤선태, 2000, 앞의 글, p. 23.

162) 이영호, 1983, 앞의 글, p. 104; 채상식, 1984, 앞의 글, p. 116. 윤선태, 2002, 앞의 글, p. 94.

163) 『三國史記』, 職官志, 永昌宮成典.

신문왕 4년의 성전설치는 그 다음 해에 완성될 봉성사와 망덕사의 관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성전사원 봉성사는 ‘神忠 金庾信을 奉聖하는 寺’로 판단되는데, 문무왕의 과업을 이어받아 신문왕이 김유신의 원찰로 봉성사를 완성했고, 또한 [나-4]에 나타나는 것처럼 김인문을 위한 인용사가 세워져 있었다면, 신라 태종을 위한 원찰을 세우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다. 나당연합이 유효했을 때의 일이지만, 태종무열왕의 부음을 듣고, 당고종은 洛城門에서 애도식을 거행했다고 한다.<sup>164)</sup> 대외적으로도 이처럼 높았던 태종무열왕의 위상을 감안한다면, 문무왕은 아무리 늦어도 나당전쟁 종료 직후에 태종무열왕의 추모사업을 전개했을 것이다. 따라서 망덕사는 태종무열왕의 덕을 기리기 위한 사찰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봉성사와 망덕사가 다수의 왕실사원에 성전설치를 유발할 만큼의 중요성을 가진 점에서 볼 때, 망덕사는 태종무열왕의 원찰이어야만 할 것이다.

망덕사가 태종무열왕의 원찰이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워낙 파격적이어서 쉽게 수용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필자 역시 회의적인 관점에서 아래의 사항을 반복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망덕사의 ‘望德’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둘째, 문무왕과 신문왕은 신라 태종을 위한 원찰을 건립하지 않은 것일까? 셋째, 봉성사와 망덕사가 거의 동시에 완성된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신문왕 4년(584)에 다수 왕실사찰에 성전을 설치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섯째, 봉성사의 창건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모든 의문을 해소시켰다고 본다.

당에 체류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간혀있던 김인문이 가장 안타깝게 소식을 전해들은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삼국통일을 기념한 사천왕사의 완성과 아버지인 태종무열왕을 위한 원찰인 망덕사의 완성에 관한 소식이었을 것이다.<sup>165)</sup> 김인문 설화에 사천왕사와 망덕사의 창건연기설화가 포함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추측해본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신문왕 5년(685)에 완성된 태종무열왕의 원찰인 망덕사가 어떤 연유로 성격변화를 일으켜 당황실과 연관을 맺기 시작했는가를 밝히는 데에 있다. 또한 태종무열왕의 원찰로 망덕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덕왕 6년(707)에 또 다른 태종무열왕의 원찰로 봉덕사가 건립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164) 『三國史記』, 太宗武烈王 8年 6月.

165) 김인문이 태종무열왕의 임종을 지켜보았는지는 확실치 않다. 임종이 661년 6월이었는데(『三國史記』, 太宗武烈王 8年), 김인문의 4번째 귀국도 661년 6월이었다(『三國史記』, 文武王 元年). 김인문은 당고종의 칙명을 문무왕에게 전달했다.

## IV. 망덕사의 성격변화와 봉덕사

문무왕은 재위 말기에 太宗武烈王의 어진 德을 기리기 위한 望德太宗寺와 聖臣 金庾信의 통일전쟁에 기여한 功을 받들기 위한 神忠奉聖寺의 건립에 착수했을 것이다. 이러한 과업을 이어받은 신문왕은 망덕사와 봉성사가 거의 완성된 재위 4년(684)에 망덕사와 봉성사를 비롯한 당대의 다른 중요 사찰들을 관리하기 위해 성전을 설치했다고 본다.

망덕사성전은 비교대상이 아닌 사천왕사를<sup>166)</sup> 제외한 어떤 사원성전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신라 중대에 있어서 태종의 위상은 실로 대단했을 걸로 본다. 五廟제도에서 태종은 不毀之宗<sup>167)</sup>으로 신라 중대 전반에 걸쳐 그리고 애장왕 2년(801)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높이 숭상되었을 것이다. 유교제도인 오묘에서의 위상은 곧 불교제도인 원찰에서도 유지되었을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그렇다면 이처럼 높은 위상을 가졌던 망덕사가 그 본원적 성격을 잃고 당황제와 관련되기 시작한 경위가 궁금해지는데, 그 경위는 의외로 쉽게 드러난다. 망덕사에 쌍으로 세워졌던 13층 목탑과 관련되었을 것이다.

[다-1] 봄에 망덕사 탑이 흔들렸다. (주석: 唐 令狐澄의 『新羅國記』는 “신라가 당을 위해 이 절을 세웠던 까닭에 이렇게 이름 지었다. 두 탑이 마주보며 서 있고, 높이는 13층인데, 갑자기 흔들리며 떨어졌다 붙었다 하며 곧 넘어질듯 하기를 며칠 동안 계속했다. 이 해에 安祿山의 난이 일어났는데, 아마도 그 감응이 아니었을까?”라 했다.) 4월에 당에 사신을 보냈다(『삼국사기』, 경덕왕 14년: 755).

[다-2] 3월에 망덕사의 두 탑이 격돌했다. 여름 6월에 가물었고 屈自郡의 大舍 石南烏의 아내가 한꺼번에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다. 겨울 12월 29일에 왕이 죽어 시호를 元聖이라 했다(『삼국사기』, 원성왕 14년: 798).

[다-3] 7월에 牛頭州 蘭山縣에서 엮어진 돌이 일어섰다. 熊川州 蘇大縣 釜浦의

166) 사천왕사는 중고기의 황룡사 寺格을 승계한 중심사찰이었다(이재창, 『三國史記 佛教鈔存 附註』, 『불교학보』 2, 1964, p. 317). 사천왕사는 “護國寺院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王과 같은 특정 인물에 대한 願堂이 설치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이영호, 1983, 앞의 글, p. 103). 이는 사천왕사성전의 監守이 여타 사원성전의 檢校使 등과는 격이 다름에서도(『三國史記』, 職官志) 알 수 있다.

167) 『漢書』 卷73, 韋玄成; 김용천, 2006, 앞의 글, p.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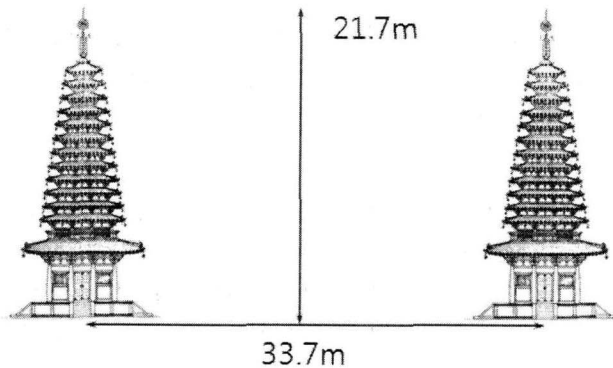
물이 핏빛으로 변화였다. 9월에 망덕사의 두 탑이 싸움을 했다(『삼국사기』, 애장왕 5년: 804).

[다-4] 정월에 흉년이 들었다. 漢山州 唐恩縣에서 길이 10자, 넓이 8자, 높이 3.5자인 돌이 저절로 100여 보를 옮겨갔다. 6월에 망덕사의 두 탑이 싸움을 했다(『삼국사기』, 헌덕왕 8년: 816).

망덕사의 목탑은 가로 3칸, 세로 3칸을 기반으로 했는데, 높이는 13층에 달했다. 하늘높이 솟은 목탑들은 경덕왕 14년 봄에 흔들렸고, 원성왕 14년 3월에 격돌했고, 애장왕 5년 9월과 헌덕왕 8년 6월에 서로 싸웠다고 한다. 두 목탑이 강한 바람 혹은 지진 등으로<sup>168)</sup> 심하게 흔들린 것을 이처럼 표현했을 것이다.

쌍탑의 싸움은 결코 상서로운 일이 아니다. [다-1]의 주석에 의하면 탑의 흔들림은 변란의 조짐 혹은 국가 안녕의 위협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다-2], [다-3], [다-4]에서 망덕사 탑의 흔들림은 모두 불길한 징후 혹은 암울하거나 기이한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다. 신라중대를 열었던 태종무열왕의 원찰에 있던 탑이 흔들렸다면, 이는 신라 중대왕실의 전반적 위기를 알리는 징후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림 1> 망덕사 13층 목탑의 배치 추정도<sup>169)</sup>



168) 망덕사는 대덕산과 남산에 의해 막힌 계곡 안에 위치하며, 주변보다 높은 동산 위에 있어 거센 바람에 노출되기 쉽다. 그러나 탑이 흔들린 계절이 일정치가 않아 태풍보다는 지진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69) 목탑의 추정입면도는 김정수, 1984, 앞의 글, p. 12, 그림 26이며, 목탑의 높이는 그의 추정치인 73尺이다. 목탑 중심 간의 거리는 조유전, 2008, 앞의 글, p. 21, 그림 11에서 110尺으로 나타난다. 1唐尺 = 29.7cm로 계산했다.

<그림 1>과 같이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망덕사 탑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정확한 시점은 알 수가 없다. 탑에 구조적 결함이 있었을 수도 있고, 현대의 고층 건물처럼 안정성에는 그다지 문제가 없지만 단순히 그 높이로 인해 흔들렸을 수도 있겠다. 신문왕 5년(685)경에 완성된 13층 목탑이 헌덕왕 8년(816)까지 쓰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망덕사 13층 목탑은 완성된 이래로 지진 혹은 태풍이 있을 때마다 심하게 흔들렸다고 볼 수 있다.

추측컨대 이러한 문제는 일찍부터 부각되어 망덕사를 건립한 지 불과 22년만인 성덕왕 6년(707)에 태종무열왕의 새로운 원찰로 奉德寺를 건립한 지경에 이르게 한 듯싶다. 봉덕사에 대해서는 성덕왕 6년(707)에 태종대왕을 위해 건립했다는 기록<sup>170)</sup>과 효성왕 2년(738)에 성덕대왕을 위해 건립했다는 기록<sup>171)</sup>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덕왕 6년에 건립된 봉덕사가 태종무열왕의 원찰이었음이 확실하다는 점에만 주목한다.<sup>172)</sup> 확실성은 앞서 거론한 ‘□德太宗寺’ 비편이 제공한다. 결자가 ‘望’이면, ‘望德太宗寺’로 망덕사를 대체할 새로운 태종무열왕의 원찰이 건립되었을 것인데, 『삼국유사』는 봉덕사라고 명시하고 있다. 만일 결자가 ‘奉’이면, ‘奉德太宗寺’가 태종무열왕의 원찰이다. 봉덕사가 태종무열왕의 원찰이었음은 성전의 구성인원에서도 나타난다.<sup>173)</sup>

이로서 태종무열왕의 원찰이 성덕왕 6년(707)에 이르러서야 건립된 것으로 문헌에 나타나는 이유가 비로소 밝혀졌다고 본다. 봉덕사는 망덕사를 대체할 태종무열왕의 새로운 원찰이었던 것이다. 望德寺와 奉德寺가 모두 ‘德’자를 포함하는 이유는 공히 태종무열왕과 관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봉덕사가 성덕왕 6년에 건립되었다는 아래 기록을 검토해 본다.

[다-5] 제 33대 성덕왕 5년(706)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렸다. 6년(707) 정월 초하루부터 7월 30일까지 백성을 구제하려 곡식을 배급했는데, 1인당 하루에 3되씩 주고 난 후에 계산해보니 300,500석이였다. 왕은 태종대왕을 위해 봉덕사를 세우고, 7일 동안 인왕도량을 베풀고, 대사면을 행했

170) “聖德王 爲太宗大王 勅奉德寺”(『三國遺事』, 紀異, 聖德王).

171) 『三國遺事』, 塔像, 皇龍寺鐘 芬皇寺藥師 奉德寺鐘.

172) 학계의 정설은 “聖德王 6年(707)에 太宗武烈을 위하여 始創되었으나 孝成王 2年(738)에 完工되면서 거기에서 父王인 聖德王의 願刹로서의 性格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호영, 『新羅 中代王室과 奉德寺』 『史學志』 8, 1974, p. 9). 봉덕사의 성격변화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173) 『三國史記』, 職官志, 奉德寺成典; 봉성사성전은 사천왕사성전보다 인원이 더 많았다. 태종무열왕의 원찰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 이때부터 비로소 시중이라는 직책을 두었다(주석: 어떤 책에는 효성 왕 때의 일이라고 한다). (『三國遺事』紀異, 聖德王).

[다-5]에 나타나는 성덕왕 5년(706)의 기근과 6년(707)의 식량배급 및 대사면은 『삼국사기』에서 확인된다.<sup>174)</sup> 따라서 인왕도량은 기근과 관련이 있으며,<sup>175)</sup> 대사면은 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책<sup>176)</sup> 혹은 유교적 정치이념의 실현<sup>177)</sup>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봉덕사에서<sup>178)</sup> 인왕도량이 열린 이유는 봉덕사 창건에 때맞추어 태종무열왕의 추모라는 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이었고, 대사령도 태종무열왕의 업적과 이념을 기리고 이어받자는 동일한 취지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성덕왕 6년에 봉덕사가 완성되기 이전에 망덕사의 원찰 기능은 이미 폐쇄되었을 것이다. 또한 망덕사 관련기록들은 모두 소멸시켰을 것이며, 망덕사가 태종무열왕의 원찰이었다는 사실은 비밀에 부쳐졌을 것이다. 따라서 직관지에 망덕사성전이 나타나지 않음은 차라리 당연하며, 후대의 비석으로 추정되는 황복사 비문에 ‘望德太宗寺’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망덕사에서 서로 싸우던 13층 목탑은 여전히 신라 중대왕조에게 부담으로 남았을 것인데, 그리하여 망덕사의 본원적 성격을 감추기 위한 창건연기설화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다-1]은 경덕왕 14년(755) 봄에 망덕사 목탑들이 며칠간 심하게 흔들렸다고 한다. 물론 이전에도 목탑들은 심하게 흔들렸을 것이지만, 이때의 흔들림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해 11월에 당에서는 安祿山이 반란을 일으켜 長安으로 진격했고, 그 이듬해에 당 현종은 황궁을 버리고 피신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sup>179)</sup> 그 이후로 신라 國人들은 755년 봄에 망덕사의 탑이 흔들렸던 사실과 그해 겨울에 당에서 일어났던 安祿山의 난이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부회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망덕사가 태종무열왕의 원찰이었다는 사실은 성공적으로 은폐되었고, 망덕사는 당황실의 안녕과 관련을 맺게 시작했을 것이다.

174) 『三國史記』, 聖德王 5年, 同王 6年.

175) 이호영, 1974, 앞의 글, p. 6; 이호영, 「성덕대왕신종명의 해석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미술사학연구』 125, 1975, p. 6; 김홍삼, 「신라 성덕왕의 왕권강화정책과 제의를 통한 하서주지방 통치(상)」 『강원사학』 13/14, 1998, p. 112.

176) 이영애, 「신라중대왕권과 봉덕사, 성덕대왕신종」, 경희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1, p. 9.

177) 김홍삼, 1998, 앞의 글, p. 115.

178) 浜田耕策은 인왕도량이 황룡사에서 열렸다고 보았다(이영애, 2001, 앞의 논문, p. 5).

179) 『舊唐書』卷200, 列傳 150, 安祿山.

망덕사를 당을 위한 사찰로 규정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은 『新羅國記』이다. 『新羅國記』는 혜공왕 4년(768)에 조문과 책봉을 위해 신라를 다녀간<sup>180)</sup> 歸崇敬을 수행했던 顧愔의 기행문이다. 『新羅國記』는 현재 전해지지 않지만, 일부 내용이 令狐澄이 편저한 『大中遺事』에 남아있다.<sup>181)</sup> 그런데 歸崇敬과 顧愔이 신라를 방문했을 때인 혜공왕 4년(768)에 망덕사는 이미 당황실의 안녕과 관련된 사찰로 인식내지는 선전되던 시점이었다. 顧愔은 이러한 내용을 『新羅國記』에 담았을 뿐이고, 『삼국사기』의 [다-1]은 『新羅國記』를 인용했음에 지나지 않는다.

끝으로 망덕사가 효소왕대에 건립되었다는 기록을 살펴본다. 이 기록은 전거를 달리하는 내용이 혼합된 것으로 보이므로 3부분으로 나누어서 표시했다.

[다-6] [A] 長壽 원년 임진년(692)에 효소왕이 즉위하여 망덕사를 처음 지어 帝室의 복을 받들려 했다. [B] 그 후 경덕왕 14년(755)에 망덕사 탑이 흔들리더니 이해에 安史의 亂이 일어났다. 신라 사람들이 말했다. “당의 帝室을 위해 절을 세웠으니 마땅히 그 영험이 있을 것이다.” [C] 8년 정유년(697)에 낙성회를 열고 효소왕이 친히 가서 공양했다(『三國遺事』 感通, 眞身受供).

[다-6]의 [A]는 효소왕 원년(692)의 착공기록이며, [B]는 [다-1]의 『삼국사기』 경덕왕 14년 기록과 다름이 없는 내용이며, [C]는 효소왕 6년(687)의 완공기록이다. [C]의 ‘효소왕 8년 정유년’은 ‘효소왕 6년 정유년(697)’의 誤記로 여겨진다.<sup>182)</sup> 일연은 [나-3]의 주석을 통해 “혹 다른 기록에서는 망덕사 창건이 효소왕 때의 일이라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했는데, 다름 아닌 [A]와 [C]를 부정하는 것이다. 일연이 효소왕대의 망덕사 건립을 부정한 근거는 확실치 않지만, 김인문의 유해송환이 이루어진 효소왕 4년(695) 이전에 망덕사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A]는 망덕사의 창건목적을 ‘奉福唐室’이라 서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이 성립되지 않음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A]의 ‘奉福唐室’은 [B]의 “爲唐室立茲寺 宜其應也”와 연관을 맺고 있다. 즉 경덕왕 14년(755)에 13층 목탑들이 혼

180) 『三國史記』, 惠恭王 4年; 『唐書』 卷220, 列傳145, 東夷, 新羅.

181) 『大中遺事』는 『貞陵遺事』라고도 한다. ‘令狐澄의 『新羅國記』’는 ‘令狐澄의 『大中遺事』’에 인용된 顧愔의 『新羅國記』를 말한다(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1977, p. 63).

182) 『東史綱目』은 “망덕사가 6년 만에 낙성되었다”고 했다(卷 4下, 癸巳年, 孝昭王 2年). 『三國史節要』도 8년보다는 丁酉年(697)을 신뢰했다.

들린 이유는 망덕사가 ‘唐室’을 위한 사찰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다-1]과 [다-1]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다-6]은 망덕사와 당황제의 관련성을 모두 망덕사 목탑의 흔들림에서 찾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망덕사가 효소왕 원년(692)에 착공되어 6년(697)에 완공되었다는 기록에 있다. 효소왕이 즉위년(692)에 착공한 사찰은 과연 망덕사였을까? 그럴 가능성보다는 효소왕의 부왕인 신문왕을 위한 원찰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할 것이다. 바로 皇福寺이다. ‘皇福寺’는 문자로만 보면 ‘皇帝 혹은 皇室의 福을 받드는 절’이다.<sup>183)</sup> 이는 ‘奉福唐(皇)室’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따라서 “임진년(692)에 효소왕이 즉위하여 唐室의 福을 받드는 절을 지었다”는 기록은 망덕사가 아닌 황복사 창건기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당황제와 관련되었다고 오해되기에 가장 쉬운 사찰은 望德寺가 아닌 皇福寺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 황제의 안녕과 관련된 사찰로 망덕사가 강력히 부각되면서 오히려 황복사 관련기록이 망덕사 관련기록으로 오인되기에 이른 것이라 판단된다.

## V. 맺음말

본 연구는 종래의 견해대로 신문왕 2년(682)에 완성된 감은사를 문무왕의 원찰로 보았으나, 신문왕 5년(685) 3월에 완성된 봉성사는 김유신 장군의 원찰이라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고, 신문왕 5년(685) 4월에 완성된 망덕사는 원래 태종무열왕의 원찰로 건립되었으나 이후에 당황실과 관련을 맺게 되었다는 파격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삼국통일을 주도한 신라의 세 영웅인 태종무열왕, 興武大王 김유신, 그리고 문무왕을 위한 원찰이 신문왕 5년(685)에 이르러 모두 완성되었다고 본다.

한편 사천왕사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을 안고 있다. 사천왕사지의 발굴결과에 따르면 사천왕사에는 문두루 비법과 관련된 오방신<sup>184)</sup>도 없었고, 사천왕사라면 마땅히 있었어야만 하는 사천왕상도 없었다. 사천왕사지에서는 5명도 4명도 아닌

183) 물론 皇福寺에서 ‘皇’은 芬皇寺에서와 마찬가지로 신라왕을 지칭한다(김창겸, 『新羅國王의 皇帝의 地位』, 『신라사학보』 2, 2004, pp. 209~247).

184) 오방신은 제석천과 그 휘하에 있는 사천왕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허형욱, 『實相寺 百丈庵 석탑의 五方神像에 대한 고찰』, 『미술사연구』 19, 2005, p. 8).

단 3명의 神像만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가히 충격적이었으며,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sup>185)</sup>

<그림 2> 사천왕사에서 발굴된 신상의 복원도



<그림 2>의 3명의 신상은 한 組를 이루어, 사천왕사탑의 각 면의 중앙에 있는 계단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1組씩 부착되어 있었다. 따라서 3명의 신상들은 “전방위를 지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sup>186)</sup>이다. 왼쪽의 신상은 왼쪽을 바라보고, 중앙의 신상은 중앙을 바라보며, 오른쪽의 신상은 오른쪽을 바라본다. 따라서 제 4의 신상이 발견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신상은 사천왕,<sup>187)</sup> 팔부신중,<sup>188)</sup> 護塔善神<sup>189)</sup> 등으로 해석되어 왔지만, 이러한 해석들이 3명의 신상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

만일 과격적인 추측이 허락된다면, 사천왕사의 3명 신상이 통일신라출범기의 망덕사, 봉성사, 감은사의 주인공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림 2>에서 위상이 가장 높아 보이는 왼쪽 A상과 위상이 가장 낮아 보이는 오른쪽 C상의 얼굴은父子처럼 닮아있고, 거느린 악귀도 비슷하다. 그러나 중앙의 B상은 A상 및 C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며, 차별화된 악귀를 거느리고 있다. 만일 A상을 태종무열왕, B상을 김유신, C상을 문무왕으로 볼 수 있다면, 이들은 護塔善

185) 강우방, 『신라 호국의 염원 사천왕사 학술연구 심포지엄 토론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8, p. 233.

186) 최장미, 강정미, 김수희, 「사천왕사지 발굴조사 성과와 의의」 『신라 호국의 염원 사천왕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8, p. 31.

187) 강우방, 「사천왕사지 출토 채유사천왕부조상의 복원적 고찰」 『미술자료』 25, 1979, pp. 26~28.

188) 문명대, 「良志와 그의 作品論」 『불교미술』 1, 1973, pp. 1~24.

189) 임영애, 「四天王寺址 塑造像의 尊名」 『미술논단』 27, 2008, pp. 7~37.

神이 아니라 신라의 護國神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추측에 대해서는 사천왕사가 문무왕 생전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문무왕을 神으로<sup>190)</sup>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사천왕사의 神像을 만들었다는 良志는 포대를 매단 지팡이를 날려 보내어 시주를 거두게 했다는 밀교승려이다. 밀교승려들의 무한한 상상력이 사천왕사에 어떤 형태로 반영되었는지를 가늠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C상만이 반가부좌를 한 이유가 밝혀져 사천왕사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특정 부분은 논거가 충분치 않아 독자의 비판적 시각이 요구됨을 밝혀둔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황복사지에서 출토된 8개의 비편이다. 그중에서 ‘□聖神忠寺’를 포함한 7개는 동일 비석의 것이지만, ‘□德太宗寺’ 비편은 다른 비석의 것으로 추정된다.<sup>191)</sup> 황복사지의 ‘□德太宗寺’와 ‘□聖神忠寺’ 비편은 신문왕과 두 사찰간의 연관성을 말해준다. 만일 이러한 비문들이 신문왕의 치적을 담고 있었다면, ‘□德太宗寺’의 결자가 ‘望’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이다.

[논문투고일 : 2월 1일, 논문심사완료일 : 2월 23일, 논문게재확정일 : 2월 25일]

190) ‘神位’에서 神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뜻한다. 문무왕은 先祖廟를 찾아 “神之聽之”(『三國史記』, 文武王 8年)라 했다. 聖德大王神鐘은 聖德大王神을 위한 鐘이다. 신라가 ‘神’이라는 용어를 죽은 왕에게만 적용했다면, “庚信復爲天神”(『三國遺事』, 紀異, 萬波息笛)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191) 윤선태, 2000, 앞의 글, p. 10.

## [참고문헌]

### 1. 기본사료

- 金富軾 撰, 이병도 譯, 『國譯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77.
- 一然 撰, 김원중 譯, 『三國遺事』, 을유문화사, 2004.
- 後晉, 張昭遠 撰, 『唐書』, 維基文庫 온라인 도서관, <http://zh.wikisource.org/>
- 北宋, 宋祁 撰, 『新唐書』, 唐 관련자료 검색엔진, <http://http://books.tang.net/>

### 2. 단행본

- 이기백, 『신라 정치사회사 연구』, 일조각, 1974.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 호국의 염원 사천왕사』, 2008.

### 3. 논문류

- 권덕영, 「김인문 小傳」 『문화사학』 21, 2004.
- 권덕영, 「비운의 신라 견당사들 -김인문을 중심으로」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15, 1994.
- 김태식, 「金庾信의 興武大王 추봉시기」 『신라사학보』 6, 2006.
- 박성계·김수민, 「金庾信關聯 文獻史料와 說話의 比較」 『신라문화』 31, 2008.
- 拜根興, 「나당전쟁 연구 중의 몇 가지 문제」 『중국학보』 46, 2002.
- 서영교, 「九誓幢 완성 배경에 대한 신고찰 -나당전쟁의 여진」 『한국고대사연구』 18, 2000.
- 서영교, 「羅唐戰爭과 吐蕃」 『동양사학연구』 79, 2002.
- 신형식, 「삼국통일전후 신라의 대외관계」 『신라문화』 2, 1985.
- 심효섭, 「신라 사천왕신앙의 수용과 전개」 『동국사학』 30, 1996.
- 윤선태, 「新羅 中代의 成典寺院과 國家儀禮 -大·中·小祀의 祭場과 관련하여」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23, 2002.
- 이근직, 「통일신라 봉성사와 절원당」 『신라사학보』 7, 2006.
- 이기동, 「新羅 中代 序說: 槿花鄉의 진실과 虛妄」 『신라문화』 25, 2005.

- 이문기, 「金官加耶系の 始祖 出自傳承과 稱姓의 變化」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25, 2004.
- 이상훈, 「당의 군사전략을 통해 본 나당전쟁기의 매소성 전투」 『신라문화』 29, 2007.
- 이영호, 「新羅中代 王室寺院의 官寺的 機能」 『한국사연구』 43, 1983.
- 이영호, 「新羅 成典寺院의 成立」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 논문집』 14, 1993.
- 이용현, 「가야의 姓氏와 ‘金官’國」 『史叢』 48, 1998.
- 이현태, 「新羅 中代 新金氏의 登場과 그 背景」 『한국고대사연구』 42, 2006.
- 이호영, 「新羅 中代王室과 奉德寺」 『史學志』 8, 1974.
- 임영애, 「四天王寺址 塑造像의 尊名」 『미술논단』 27, 2008.
- 조유영, 「삼국유사 소재 미추왕 설화의 형성배경과 그 의미」 『어문학』 98, 2007.
- 채미하, 「新羅 惠恭王代 五廟制의 改定」 『한국사연구』 108, 2000.
- 채미하, 「신라 종묘제의 수용과 그 의미」 『역사학보』 176, 2002.
- 채상식, 「新羅統一期の 成典寺院의 구조와 기능」 『부산사학』 8, 1984.
- 최민희, 「儀鳳四年皆土 글씨기와의를 통해 본 신라의 통일 의식과 통일기년」 『경주사학』 21, 2002.
- 황운룡, 「신라태종묘호의 분류시말」 『동국사학』 17, 1982.